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조사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목 차

I. 서론	5
1. 조사 배경	6
2. 조사목적	9
II. 조사 방법	10
1. 조사 설계	11
2. 조사 수행 절차	12
3. 조사기관	13
4. 조사 대상	13
5. 조사 도구	14
6. 자료수집	15
7. 자료 분석	15
III. 조사 결과	16
1. 응답자 특성	17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19
3. 치매환자 특성	60
4. 치매환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62
IV. 결론 및 제언	81
1. 결론	82
2. 제언	87
V. 참고문헌	91
VI. 부록	94

표 목 차

[표 1] 재가급여 제공 기관 현황	7
[표 2] 조사 설계	11
[표 3] 연구 수행 절차	12
[표 4] 조사기관 및 참여 대상 현황	13
[표 5] 조사 도구 세부 내용	14
[표 6] 응답자 일반적 특성	18
[표 7] 치매가족휴가제 인지 여부	22
[표 8] 치매가족휴가제 정보습득 경험	25
[표 9]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경험 유무	30
[표 10] 치매가족휴가제 부양부담 완화 정도	32
[표 11] 치매가족휴가제 차량 이동 시간	32
[표 12]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유무	37
[표 13]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43
[표 14]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걱정 여부	46
[표 15] 치매가족휴가제 자부담 비율 적정성	50
[표 16] 응답자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차이	51
[표 17] 응답자 적절 자부담 비율	51
[표 18] 치매가족휴가제 필요성	54
[표 1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 차이	55
[표 20] 치매가족휴가제 응답에 따른 치매환자 돌봄 어려움	59
[표 21] 치매환자 일반적 특성	61
[표 22] 치매가족휴가제 인지 여부	64
[표 23] 치매가족휴가제 정보 습득 경험	66
[표 24]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경험 유무	69
[표 25]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유무	71
[표 26]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74
[표 27]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 여부	76
[표 28]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정성	78
[표 29]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	80

그림 목차

[그림 1] 치매가족휴가제 정보습득 경험 및 경로	26
[그림 2]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이용일 수 및 만족도	31
[그림 3]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이용일 수 및 만족도	31
[그림 4]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가장 우선 사항	33
[그림 5]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경험 및 미이용 이유	34
[그림 6]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유무 및 이용의향 있는 이유	38
[그림 7]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유무 및 이용의향 없는 이유	39
[그림 8] 치매가족휴가제 걱정 여부 및 걱정 이용일 수	47
[그림 9]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하지 않은 사유	47
[그림 10] 장기요양급여 적절 자부담 비율 및 작성 이유	51
[그림 11] 자부담 비율 부정 응답 이유	55
[그림 12]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의견(.....	56

I

서론

1. 조사 배경
2. 조사목적

1. 조사 배경

치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담이 큰 질환으로 우리나라 50대에서 이상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나타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20). 더욱이 치매 환자의 가족 보호자는 피로·건강 악화 등의 신체적 문제, 불안·우울·사회활동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간 갈등 등의 다양한 돌봄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김미령 외 2인, 2022). 특히, 치매환자 돌봄에 있어 가정의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는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증상의 다양성,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 대한 돌봄 제공,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담, 경제적 부담, 주·야간 보호시설 부족, 장기요양 시설에서의 의료 접근성 취약,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미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정승훈 외 1인, 2022; 오영주 외 2인, 2020).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적 정책지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강은나, 2022).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가족 휴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9일(2023년) 이내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치매가족휴가제는 1~2등급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연간 6일 범위에서 노인을 단기보호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치매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기관 부족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노인들이 시설 입소를 꺼리는 문제가 나타나 2016년 9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도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의 안전 문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2등급자로 대상을 제한하다 보니 이용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2018년 1월부터는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한 전 등급의 치매 노인으로 확대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1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0.15%에 불과하였으며, 이 제도의 이용률 조사가 시작된 2018년에는 0.13%이었고 2019년과 2020년 모두 0.18%의 치매 가족이 휴가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4년째 0.2% 선을 넘지 못하였다(표 1).

[표 1] 재가급여 제공 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6.
인정자 수	415,414	476,934	529,475	558,552
이용자 수	548(0.13)	848(0.18)	943(0.18)	845(0.15)
24시간 방문요양(이용률)	153(0.04)	272(0.06)	304(0.06)	284(0.05)
단기보호(이용률)	395(0.10)	576(0.12)	639(0.12)	561(0.10)

* 출처: 고영인 의원실(2021)

따라서 치매 가족들이 치매 가족휴가제를 편리하고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치매가족 휴가제 관련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김미현, 2018).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고(유애정 외 2인, 2015; 이서영, 2014), 더불어 최근 치매환자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통계청, 2023)으로 치매 환자의 돌봄에 요양보호사와 같은 가족 이외의 돌봄제공자가 증가되는 추세이다(허목화 외 2인, 2022; 윤보라 외 6인, 2012). 하지만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이외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를 위한 보호자 대상의 연구는 가족은 물론 치매환자의 돌봄이나 보호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간병인), 친척, 이웃 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조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 주·야간보호소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이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인지와 이용경험 등을 알아보아 향후 정책 요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목적

본 조사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이용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인지도, 이용 경험과 이용의향, 필요도 및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치매가족휴가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치매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일반 현황을 파악한다.
- 치매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치매가족휴가제 인지도를 파악한다.
- 치매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경험을 파악한다.
- 치매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의향을 파악한다.
- 치매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치매가족휴가제 필요도를 파악한다.
- 치매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요구를 파악한다.

II

조사 방법

1. 조사 설계
2. 조사 수행 절차
3. 조사기관
4. 조사대상
5. 조사 도구
6. 자료수집
7. 자료 분석

1. 조사 설계

조사 설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기관	- 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 기관(3개소) 및 미참여 주·야간보호기관(5개소)
조사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환자의 보호자
조사지역	- 도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재 5개 시·군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조사규모	- 143명(시범사업 참여 기관: 44명,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 99명)
조사도구	-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표를 참고하여 자체 구성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기간	- 2023.09. ~ 2023.11.(3개월)
설문 내용	- 37개 문항 · 치매환자 특성 8문항 · 치매가족휴가제 19문항 · 응답자 특성 10문항

2. 조사 수행 절차

조사 수행 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수행 절차

수행 기관	내용	결과	비고
광역 치매 센터	참여 기관 모집 (*23.06.19.~07.03.)	- 장기요양기관 대상 공문 발송	-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 기관 및 동일지역 미참여 기관
	설문 문항 구성 (*23.07.01.~08.31.)	- 자문: 외부 전문가 2인 - 문항: 총 37문항 (치매환자 특성, 치매가족휴가제, 응답자 특성)	- 신경과 교수, 간호학과 교수
	설문지 발송 (*23.09.07.)	- 대상: 도내 11개 장기요양기관 (춘천 2개, 원주 2개, 홍천 2개, 횡성 3개, 철원 2개) - 내용: 설문지, 협조 요청 공문, 연구 계획서 - 방법: 우편 발송	- 광역치매센터 → 장기요양기관
장기 요양 기관	설문지 배포 (*23.09.08.~09.26.)	- 참여: 도내 8개 장기요양기관 (춘천 1개, 원주 1개, 홍천 2개, 횡성 3개, 철원 1개) - 대상: 장기요양기관 이용 치매환자 보호자 196명 - 방법: 가정통신문 배포	- 3개 기관 거부 - 장기요양기관 → 보호자
	설문지 회수 (*23.09.09.~10.02.)	- 대상: 장기요양기관 이용 치매환자 보호자 145명 - 방법: 인편(치매환자), 팩스	- 보호자→장기요양기관 - 회수율 74%
광역 치매 센터	자료수집 (*23.09.25.~11.10.)	- 방법: 우편 회수 - 내용: 설문지 145부	- 장기요양기관 → 광역치매센터 - 제외: 데이터 미흡 2건
	결과 분석	- 대상: 총 143건 - 방법: SPSS 21.0	
	보고서 배포 (*23.11.~12.)	-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게시	

3. 조사기관

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이하 공단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동일지역 내 규모가 비슷한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지원한 11개 기관 중 지원기관 내부 검토 후 3개 기관이 거부하여 최종 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4. 조사 대상

대상자인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를 복용하는 치매환자의 돌봄제공자 196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145명이 회신하였고, 그 중 설문 응답이 미흡한 2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상자는 143명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 및 대상자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사기관 및 참여 대상 현황

(단위: 개, 명, %)

시·군명	기관 수	대상자 수	응답자 수	응답률
합 계	8	196	143	73.0
춘천시	1	30	24	80.0
원주시	1	30	19	63.3
홍천군	2	61	40	65.7
횡성군	3	55	44	80.0
철원군	1	20	16	80.0

5. 조사 도구

본 조사의 설문지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표를 참고하여 외부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3개 영역으로 치매환자 특성 8문항, 치매가족휴가제 19문항(정책인지도 2문항, 이용 경험 6문항, 이용 의향 3문항, 향후 이용시 고려사항 1문항, 걱정 이용 일수 1문항, 현 자부담 비율 걱정성 3문항, 정책 필요성 2문항, 정책 활성화 방안 1문항), 응답자 특성 10문항,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표 5).

[표 5] 조사 도구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치매환자 특성 (8문항)		- 나이, 성별, 거주지역, 가구형태, 돌봄기간, 일상생활 필요 도움 정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치매가족휴가제 (19문항)	정책 인지도 (2문항)	- 인지 정도 - 정보습득 경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경험 (6문항)	- 이용 경험/이용 정도 - 전반적 만족도 - 이용 경험을 통한 부양부담 완화 정도 - 이용을 위한 차량 이동 시간 - 이용 시 우선 사항 - 미이용 이유
	치매가족휴가제 향후 이용 의향 (3문항)	- 이용 의향(유, 무)/ 이유 - 이용 시 우선 사항
	향후 이용시 고려사항 (1문항)	- 향후 이용 시 고려사항
	치매가족휴가제 걱정 이용일 수 (1문항)	- 걱정 이용 일수
	현 자부담 비율 걱정성 (3문항)	- 자부담 비율 걱정성/이유 - 걱정 자부담 비율
	치매가족휴가제 필요성 (2문항)	- 정책 필요성 - 정책 불필요 이유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1문항)	- 활성화 방안(개방형 질문)
응답자 일반적 특성 (10문항)		- 거주지역, 성별, 나이, 교육연수, 경제수준, 환자와 관계, 환자와 동거 여부, 방문 주기, 돌봄 제공 시간, 돌봄 어려움 정도

6.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3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47일 동안 실시하였다.

본 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참여기관에서 돌봄 제공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동의한 보호자로부터 설문지를 인편(치매환자 참여기관 이용시)으로 수거하였다. 그 후 참여기관에서 본 기관으로 설문지 원본을 우편 발송하였다.

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21(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① 치매환자 특성, 치매가족휴가제, 응답자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② 응답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교차표로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 ③ 응답자 특성 동거 여부와 가족 여부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을 교차분석하였다.
- ④ 치매환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교차표로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3. 치매환자 특성
4. 치매환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1. 응답자 특성

본 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성별은 여자 101명(70.6%)으로 남자 42명(29.4%)보다 2.4배 많았다.

나이는 49세 이하 23명(16.1%), 50대 50명(35.0%), 60대 52명(36.3%), 70세 이상 18명(12.6%)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3명(16.1%), 원주시 24명(16.8%), 홍천군 37명(25.9%), 횡성군 39명(27.2%), 철원군 15명(10.5%), 화천군 1명(0.7%), 타 시도 4명(2.8%)이었다. 타 시·도 거주자는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였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6명(4.2%), 6~10년 이하 53명(37.1%), 11~15년 이하 59명(41.2%), 16년 이상 25명(17.5%)이었다.

치매환자 동거 여부는 동거 77명(53.8%), 비동거 66명(46.2%)이었다.

치매환자 관계는 배우자 10명(7.0%), 자녀 70명(49.0%), 며느리 27명(18.9%), 사위 2명(1.3%), 손자녀 3명(2.1%), 친인척 6명(4.2%),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20명(14%), 기타 5명(3.5%)이었다. 기타는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4명이었다.

치매환자 일 돌봄시간은 5시간 이하 75명(52.4%), 6~10시간 이하 42명(29.4%), 11~15시간 이하 13명(9.1%), 16시간 이상 13명(9.1%)이었다.

돌봄 어려움 여부는 신체적 어려움 있다 92명(64.3%), 없다 51명(35.7%), 정서적 어려움 있다 96명(67.1%), 없다 47명(32.9%), 경제적 어려움 있다 62명(43.4%), 없다 81명(56.6%), 사회적 어려움 있다 70명(49.0%), 없다 73명(51.0%), 시간적 어려움 있다 80명(55.9%), 없다 63명(44.1%)이었다.

공단 시범사업 참여기관 이용자는 44명(30.8%), 미참여 기관 이용자 99명(69.2%)이었다.

[표 6] 응답자 일반적 특성

			(N=143)			
구분		n(%)	구분	n(%)		
성별	남자	42(29.4)	치매환자 관계	배우자	10(7.0)	
	여자	101(70.6)		자녀	70(49.0)	
나이	49세 이하	23(16.1)		며느리	27(18.9)	
	50대	50(35.0)		사위	2(1.3)	
	60대	52(36.3)		손자녀	3(2.1)	
	70세 이상	18(12.6)		친인척	6(4.2)	
거주 지역	춘천시	23(16.1)		간병인, 요양보호사	20(14.0)	
	원주시	24(16.8)		기타	5(3.5)	
	홍천군	37(25.9)	치매환자 일 돌봄시간	5시간 이하	75(52.4)	
	횡성군	39(27.2)		6~10시간 이하	42(29.4)	
	철원군	15(10.5)		11~15시간 이하	13(9.1)	
	화천군	1(0.7)		16시간 이상	13(9.1)	
	교육 연수	타 시도	4(2.8)	돌봄 어려움 여부	신 체	있다
5년 이하		6(4.2)	없다			51(35.7)
6~10년 이하		53(37.1)	정 서		있다	96(67.1)
11~15년 이하		59(41.2)			없다	47(32.9)
경제 수준	16년 이상	25(17.5)	경 제		있다	62(43.4)
	해당없음	130(90.9)			없다	81(56.6)
	경감대상자	9(6.3)	사 회		있다	70(49.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2.8)	없다			73(51.0)	
치매 환자 동거	동거	77(53.8)	시 간	있다	80(55.9)	
	비동거	66(46.2)		없다	63(44.1)	
			공단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30.8)	
				미참여기관 이용	99(69.2)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1)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인지 여부

치매가족휴가제 인지 여부는 단기보호 비인지 88명(61.5%), 인지 55명(38.5%)과 종일방문요양 비인지 101명(70.6%), 인지 42명(29.4%)으로 비인지가 더 많았다(표 7).

단기보호 인지 여부에 비인지로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다.

성별은 남자 30명(71.4%), 여자 58명(57.4%)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18명(78.3%), 50대 32명(64.0%), 60대 28명(53.8%), 70세 이상 10명(55.6%)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7명(30.4%), 원주시 22명(91.7%), 홍천군 24명(64.9%), 횡성군 25명(64.1%), 철원군 7명(46.7%),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2명(50.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3명(50.0%), 6~10년 이하 34명(64.2%), 11~15년 이하 35명(59.3%), 16년 이상 16명(64.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79명(60.8%), 경감대상자 6명(66.7%), 기초생활수급자 3명(75.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42명(54.5%), 비동거 46명(69.7%)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4명(40.0%), 자녀 46명(65.7%), 며느리 15명(55.6%), 사위 1명(50.0%), 손자녀 3명(100.0%), 친인척 5명(83.3%),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11명(55.0%), 기타 3명(6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48명(64.0%), 6~10시간 이하 26명(61.9%), 11~15시간 이하 6명(46.2%), 16시간 이상 8명(61.5%)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59명(64.1%), 없다 29명(56.9%)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60명(62.5%), 없다 28명(59.6%)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41명(66.1%), 없다 47명(58.0%)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43명(61.4%), 없다 45명(61.6%)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48명(60.0%), 없다 40명(63.5%)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21명(47.7%), 미참여기관 이용 67명(67.7%)이었다.

종일방문요양 인지 여부에 비인지로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다.

성별은 남자 32명(76.2%), 여자 69명(68.3%)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19명(82.6%), 50대 38명(76.0%), 60대 32명(61.5%), 70세 이상 12명(66.7%)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12명(52.2%), 원주시 22명(91.7%), 홍천군 28명(75.7%), 횡성군 26명(66.7%), 철원군 9명(60.0%),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3명(75.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3명(50.0%), 6~10년 이하 37명(69.8%), 11~15년 이하 43명(72.9%), 16년 이상 18명(72.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91명(70.0%), 경감대상자 7명(77.8%), 기초생활수급자 3명(75.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46명(59.7%), 비동거 55명(83.3%)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5명(50.0%), 자녀 52명(74.3%), 며느리 19명(70.4%), 사위 1명(50.0%), 손자녀 3명(100.0%), 친인척 5명(83.3%),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13명(65.0%), 기타 3명(6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55명(73.3%), 6~10시간 이하 30명(71.4%), 11~15시간 이하 7명(53.8%), 16시간 이상 9명(69.2%)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66명(71.7%), 없다 35명(68.6%)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67명(69.8%), 없다 34명(72.3%)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47명(75.8%), 없다 54명(66.7%)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50명(71.4%), 없다 51명(69.9%)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56명(70.0%), 없다 45명(71.4%)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25명(56.8%), 미참여기관 이용 76명(76.8%)이었다.

[표 7] 치매가족휴가제 인지 여부

(N=143)

구분	N	단기보호 인지 여부		종일방문요양 인지 여부			
		인지 n(%)	비인지 n(%)	인지 n(%)	비인지 n(%)		
전체	143	55(38.5)	88(61.5)	42(29.4)	101(70.6)		
성별	남자	42	12(28.6)	30(71.4)	10(23.8)	32(76.2)	
	여자	101	43(42.6)	58(57.4)	32(31.7)	69(68.3)	
나이	49세 이하	23	5(21.7)	18(78.3)	4(17.4)	19(82.6)	
	50대	50	18(36.0)	32(64.0)	12(24.0)	38(76.0)	
	60대	52	24(46.2)	28(53.8)	20(38.5)	32(61.5)	
	70세 이상	18	8(44.4)	10(55.6)	6(33.3)	12(66.7)	
거주지역	춘천시	23	16(69.6)	7(30.4)	11(47.8)	12(52.2)	
	원주시	24	2(8.3)	22(91.7)	2(8.3)	22(91.7)	
	홍천군	37	13(35.1)	24(64.9)	9(24.3)	28(75.7)	
	횡성군	39	14(35.9)	25(64.1)	13(33.3)	26(66.7)	
	철원군	15	8(53.3)	7(46.7)	6(40.0)	9(60.0)	
	화천군	1	0(0.0)	1(100.0)	0(0.0)	1(100.0)	
	타 시도	4	2(50.0)	2(50.0)	1(25.0)	3(75.0)	
교육연수	5년 이하	6	3(50.0)	3(50.0)	3(50.0)	3(50.0)	
	6~10년 이하	53	19(35.8)	34(64.2)	16(30.2)	37(69.8)	
	11~15년 이하	59	24(40.7)	35(59.3)	16(27.1)	43(72.9)	
	16년 이상	25	9(36.0)	16(64.0)	7(28.0)	18(72.0)	
경제수준	해당없음	130	51(39.2)	79(60.8)	39(30.0)	91(70.0)	
	경감대상자	9	3(33.3)	6(66.7)	2(22.2)	7(77.8)	
	기초생활수급자	4	1(25.0)	3(75.0)	1(25.0)	3(75.0)	
치매환자 동거	동거	77	35(45.5)	42(54.5)	31(40.3)	46(59.7)	
	비동거	66	20(30.3)	46(69.7)	11(16.7)	55(83.3)	
치매환자 관계	배우자	10	6(60.0)	4(40.0)	5(50.0)	5(50.0)	
	자녀	70	24(34.3)	46(65.7)	18(25.7)	52(74.3)	
	며느리	27	12(44.4)	15(55.6)	8(29.6)	19(70.4)	
	사위	2	1(50.0)	1(50.0)	1(50.0)	1(50.0)	
	손자녀	3	0(0.0)	3(100.0)	0(0.0)	3(100.0)	
	친인척	6	1(16.7)	5(83.3)	1(16.7)	5(83.3)	
	간병인, 요양보호사	20	9(45.0)	11(55.0)	7(35.0)	13(65.0)	
	기타	5	2(40.0)	3(60.0)	2(40.0)	3(60.0)	
치매환자 일 돌봄시간	5시간 이하	75	27(36.0)	48(64.0)	20(26.7)	55(73.3)	
	6~10시간 이하	42	16(38.1)	26(61.9)	12(28.6)	30(71.4)	
	11~15시간 이하	13	7(53.8)	6(46.2)	6(46.2)	7(53.8)	
	16시간 이상	13	5(38.5)	8(61.5)	4(30.8)	9(69.2)	
돌봄 어려움 여부	신체	있다	92	33(35.9)	59(64.1)	26(28.3)	66(71.7)
		없다	51	22(43.1)	29(56.9)	16(31.4)	35(68.6)
	정서	있다	96	36(37.5)	60(62.5)	29(30.2)	67(69.8)
		없다	47	19(40.4)	28(59.6)	13(27.7)	34(72.3)
	경제	있다	62	21(33.9)	41(66.1)	15(24.2)	47(75.8)
		없다	81	34(42.0)	47(58.0)	27(33.3)	54(66.7)
	사회	있다	70	27(38.6)	43(61.4)	20(28.6)	50(71.4)
		없다	73	28(38.4)	45(61.6)	22(30.1)	51(69.9)
	시간	있다	80	32(40.0)	48(60.0)	24(30.0)	56(70.0)
		없다	63	23(36.5)	40(63.5)	18(28.6)	45(71.4)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23(52.3)	21(47.7)	19(43.2)	25(56.8)	
	미참여기관 이용	99	32(32.3)	67(67.7)	23(23.2)	76(76.8)	

2)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보습득 경험

치매가족휴가제 정보 습득 경험은 있다 105명(73.4%), 없다 38명(26.6%) 순이었다(표 8).

치매가족휴가제 정보습득 경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특성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4명(57.1%), 여자 81명(80.2%)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15명(65.2%), 50대 39명(78.0%), 60대 40명(76.9%), 70세 이상 11명(61.1%)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3명(100.0%), 원주시 10명(41.7%), 홍천군 23명(62.2%), 횡성군 32명(82.1%), 철원군 14명(93.3%),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2명(50.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3명(50.0%), 6~10년 이하 36명(67.9%), 11~15년 이하 46명(78.0%), 16년 이상 20명(80.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95명(73.1%), 경감대상자 8명(88.9%), 기초생활수급자 2명(50.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58명(75.3%), 비동거 47명(71.2%)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8명(80.0%), 자녀 50명(71.4%), 며느리 23명(85.2%), 사위 1명(50.0%), 손자녀 1명(33.3%), 친인척 4명(66.7%),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14명(70.0%), 기타 4명(8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55명(73.3%), 6~10시간 이하 33명(78.6%), 11~15시간 이하 7명(53.8%), 16시간 이상 10명(76.9%)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66명(71.7%), 없다 39명(76.5%)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70명(72.9%), 없다 35명(74.5%)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46명(74.2%), 없다 59명(72.8%)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54명(77.1%), 없다 51명(69.9%)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59명(73.8%), 없다 46명(73.0%)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8명(86.4%), 미참여기관 이용 67명(67.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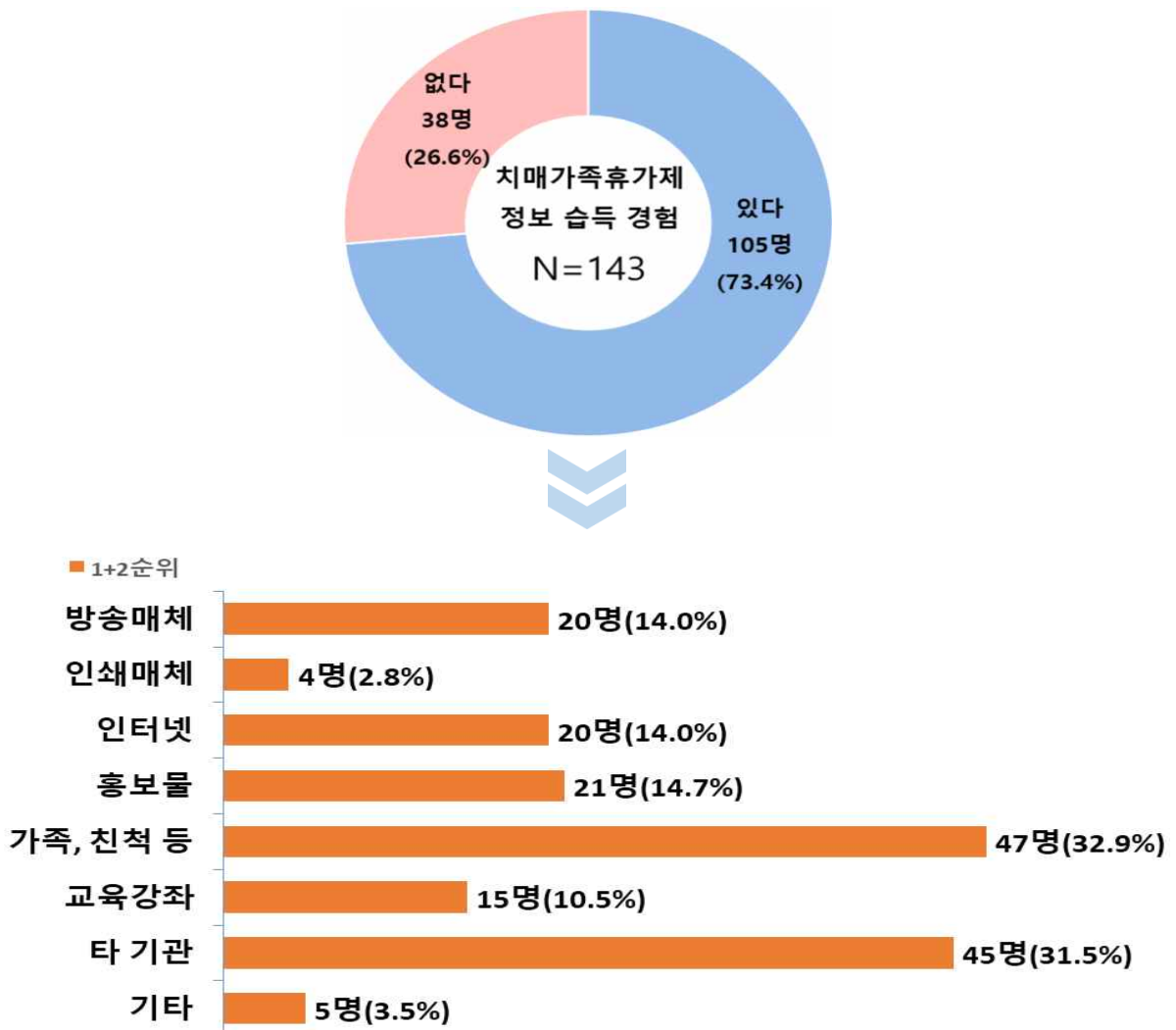
[표 8] 치매가족휴가제 정보습득 경험

(N=143)

구분		N	있다 n(%)	없다 n(%)	
전체		143	105(73.4)	38(26.6)	
성별	남자	42	24(57.1)	18(42.9)	
	여자	101	81(80.2)	20(19.8)	
나이	49세 이하	23	15(65.2)	8(34.8)	
	50대	50	39(78.0)	11(22.0)	
	60대	52	40(76.9)	12(23.1)	
	70세 이상	18	11(61.1)	7(38.9)	
거주지역	춘천시	23	23(100.0)	0(0.0)	
	원주시	24	10(41.7)	14(58.3)	
	홍천군	37	23(62.2)	14(37.8)	
	횡성군	39	32(82.1)	7(17.9)	
	철원군	15	14(93.3)	1(6.7)	
	화천군	1	1(100.0)	0(0.0)	
	타 시도	4	2(50.0)	2(50.0)	
교육연수	5년 이하	6	3(50.0)	3(50.0)	
	6~10년 이하	53	36(67.9)	17(32.1)	
	11~15년 이하	59	46(78.0)	13(22.0)	
	16년 이상	25	20(80.0)	5(20.0)	
경제수준	해당없음	130	95(73.1)	35(26.9)	
	경감대상자	9	8(88.9)	1(11.1)	
	기초생활수급자	4	2(50.0)	2(50.0)	
치매환자 동거	동거	77	58(75.3)	19(24.7)	
	비동거	66	47(71.2)	19(28.8)	
치매환자 관계	배우자	10	8(80.0)	2(20.0)	
	자녀	70	50(71.4)	20(28.6)	
	며느리	27	23(85.2)	4(14.8)	
	사위	2	1(50.0)	1(50.0)	
	손자녀	3	1(33.3)	2(66.7)	
	친인척	6	4(66.7)	2(33.3)	
	간병인, 요양보호사	20	14(70.0)	6(30.0)	
	기타	5	4(80.0)	1(20.0)	
치매환자 일 돌봄시간	5시간 이하	75	55(73.3)	20(26.7)	
	6~10시간 이하	42	33(78.6)	9(21.4)	
	11~15시간 이하	13	7(53.8)	6(46.2)	
	16시간 이상	13	10(76.9)	3(23.1)	
돌봄 어려움 여부	신체	있다	92	66(71.7)	26(28.3)
		없다	51	39(76.5)	12(23.5)
	정서	있다	96	70(72.9)	26(27.1)
		없다	47	35(74.5)	12(25.5)
	경제	있다	62	46(74.2)	16(25.8)
		없다	81	59(72.8)	22(27.2)
	사회	있다	70	54(77.1)	16(22.9)
		없다	73	51(69.9)	22(30.1)
	시간	있다	80	59(73.8)	21(26.3)
		없다	63	46(73.0)	17(27.0)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38(86.4)	6(13.6)
		미참여기관 이용	99	67(67.7)	32(32.3)

2-1)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보습득 경로

치매가족휴가제 정보습득 경로 1+2순위는 가족·친척·친구·지인 등 47명 (32.9%), 타 기관(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27명(31.5%),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20명(14.0%), 홍보물(책자, 리플렛 등) 21명(14.7%), 인터넷(홈페이지, SNS 등) 20명(14.0%), 교육강좌 15명(10.5%), 기타 5명 (3.5%), 인쇄매체(신문 등) 4명(2.8%) 순이다. 기타는 장기요양기관 안내문 4명, 요양보호사 교육 1명이다(그림 1).



[그림 1] 치매가족휴가제 정보습득 경험 및 경로(1+2순위, n=105)

3)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경험 유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경험은 없다 138명(96.5%), 있다 5명(3.5%)과 종일방문요양 없다 141명(99.3%), 있다 1명(0.7%) 순이었다(표 9).

단기보호 이용경험에 없자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40명(95.2%), 여자 98명(97.0%)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23명(100.0%), 50대 49명(98.0%), 60대 48명(92.3%), 70세 이상 18명(100.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1명(91.3%), 원주시 24명(100.0%), 홍천군 37명(100.0%), 횡성군 37명(94.9%), 철원군 14명(93.3%),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4명(100.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6명(100.0%), 6~10년 이하 50명(94.3%), 11~15년 이하 59명(100.0%), 16년 이상 23명(92.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125명(96.2%), 경감대상자 9명(100.0%), 기초생활수급자 4명(100.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74명(96.1%), 비동거 64명(97.0%)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10명(100.0%), 자녀 67명(95.7%), 며느리 26명(96.3%), 사위 2명(100.0%), 손자녀 3명(100.0%), 친인척 6명(100.0%),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20명(100.0%), 기타 4명(8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74명(98.7%), 6~10시간 이하 38명(90.5%), 11~15시간 이하 13명(100.0%), 16시간 이상 13명(100.0%)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88명(95.7%), 없다 50명(98.0%)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93명(96.9%), 없다 45명(95.7%)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62명(100.0%), 없다 76명(93.8%)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69명(98.6%), 없다 69명(94.5%)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79명(98.8%), 없다 59명(93.7%)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42명(95.5%), 미참여기관 이용 96명(97.0%)이었다.

종일방문요양 이용경험에 없으므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42명(100.0%), 여자 100명(99.0%)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23명(100.0%), 50대 49명(98.0%), 60대 52명(100.0%), 70세 이상 18명(100.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2명(95.7%), 원주시 24명(100.0%), 홍천군 37명(100.0%), 횡성군 39명(100.0%), 철원군 15명(100.0%),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4명(100.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6명(100.0%), 6~10년 이하 52명(98.1%), 11~15년 이하 59명(100.0%), 16년 이상 25명(100.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129명(99.2%), 경감대상자 9명(100.0%), 기초생활수급자 4명(100.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77명(100.0%), 비동거 65명(98.5%) 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10명(100.0%), 자녀 69명(98.6%), 며느리 27명(100.0%), 사위 2명(100.0%), 손자녀 3명(100.0%), 친인척 6명(100.0%),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20명(100.0%), 기타 5명(10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74명(98.7%), 6~10시간 이하 42명(100.0%), 11~15시간 이하 13명(100.0%), 16시간 이상 13명(100.0%)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91명(98.9%), 없다 51명(100.0%)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96명(100.0%), 없다 46명(97.9%)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62명(100.0%), 없다 80명(98.8%)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69명(98.6%), 없다 73명(100.0%)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79명(98.8%), 없다 63명(100.0%)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44명(100.0%), 미참여기관 이용 98명(99.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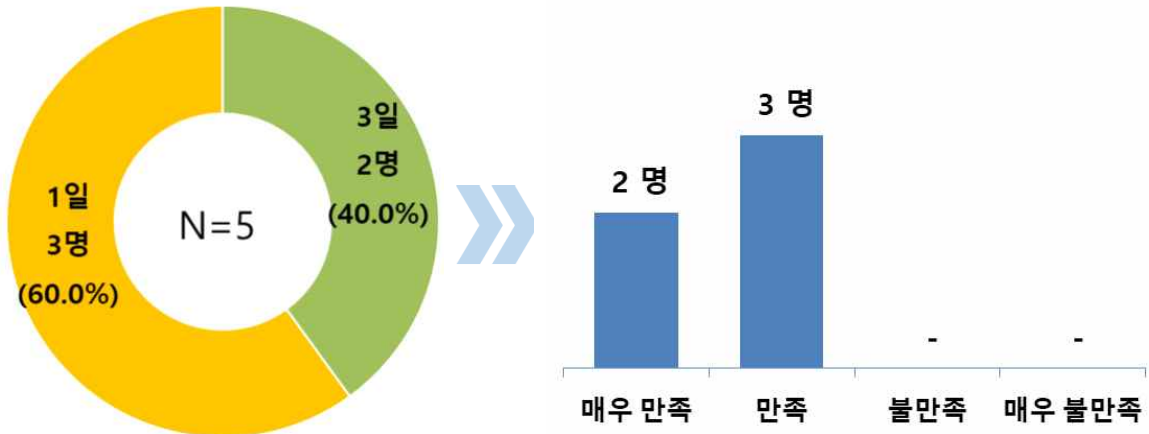
[표 9]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경험 유무

(N=143)

구분	N	단기보호 이용경험 유무		종일방문요양 이용경험 유무			
		있다 n(%)	없다 n(%)	있다 n(%)	없다 n(%)		
전체	143	5(3.5)	138(96.5)	1(0.7)	142(99.3)		
성별	남자	42	2(4.8)	40(95.2)	0(0.0)	42(100.0)	
	여자	101	3(3.0)	98(97.0)	1(1.0)	100(99.0)	
나이	49세 이하	23	0(0.0)	23(100.0)	0(0.0)	23(100.0)	
	50대	50	1(2.0)	49(98.0)	1(2.0)	49(98.0)	
	60대	52	4(7.7)	48(92.3)	0(0.0)	52(100.0)	
	70세 이상	18	0(0.0)	18(100.0)	0(0.0)	18(100.0)	
거주지역	춘천시	23	2(8.7)	21(91.3)	1(4.3)	22(95.7)	
	원주시	24	0(0.0)	24(100.0)	0(0.0)	24(100.0)	
	홍천군	37	0(0.0)	37(100.0)	0(0.0)	37(100.0)	
	횡성군	39	2(5.1)	37(94.9)	0(0.0)	39(100.0)	
	철원군	15	1(6.7)	14(93.3)	0(0.0)	15(100.0)	
	화천군	1	0(0.0)	1(100.0)	0(0.0)	1(100.0)	
	타 시도	4	0(0.0)	4(100.0)	0(0.0)	4(100.0)	
교육연수	5년 이하	6	0(0.0)	6(100.0)	0(0.0)	6(100.0)	
	6~10년 이하	53	3(5.7)	50(94.3)	1(1.9)	52(98.1)	
	11~15년 이하	59	0(0.0)	59(100.0)	0(0.0)	59(100.0)	
	16년 이상	25	2(8.0)	23(92.0)	0(0.0)	25(100.0)	
경제수준	해당없음	130	5(3.8)	125(96.2)	1(0.8)	129(99.2)	
	경감대상자	9	0(0.0)	9(100.0)	0(0.0)	9(100.0)	
	기초생활수급자	4	0(0.0)	4(100.0)	0(0.0)	4(100.0)	
치매환자 동거	동거	77	3(3.9)	74(96.1)	0(0.0)	77(100.0)	
	비동거	66	2(3.0)	64(97.0)	1(1.5)	65(98.5)	
치매환자 관계	배우자	10	0(0.0)	10(100.0)	0(0.0)	10(100.0)	
	자녀	70	3(4.3)	67(95.7)	1(1.4)	69(98.6)	
	며느리	27	1(3.7)	26(96.3)	0(0.0)	27(100.0)	
	사위	2	0(0.0)	2(100.0)	0(0.0)	2(100.0)	
	손자녀	3	0(0.0)	3(100.0)	0(0.0)	3(100.0)	
	친인척	6	0(0.0)	6(100.0)	0(0.0)	6(100.0)	
	간병인, 요양보호사	20	0(0.0)	20(100.0)	0(0.0)	20(100.0)	
	기타	5	1(20.0)	4(80.0)	0(0.0)	5(100.0)	
치매환자 일 돌봄시간	5시간 이하	75	1(1.3)	74(98.7)	1(1.3)	74(98.7)	
	6~10시간 이하	42	4(9.5)	38(90.5)	0(0.0)	42(100.0)	
	11~15시간 이하	13	0(0.0)	13(100.0)	0(0.0)	13(100.0)	
	16시간 이상	13	0(0.0)	13(100.0)	0(0.0)	13(100.0)	
돌봄 어려움 여부	신체	있다	92	4(4.3)	88(95.7)	1(1.1)	91(98.9)
		없다	51	1(2.0)	50(98.0)	0(0.0)	51(100.0)
	정서	있다	96	3(3.1)	93(96.9)	0(0.0)	96(100.0)
		없다	47	2(4.3)	45(95.7)	1(2.1)	46(97.9)
	경제	있다	62	0(0.0)	62(100.0)	0(0.0)	62(100.0)
		없다	81	5(6.2)	76(93.8)	1(1.2)	80(98.8)
	사회	있다	70	1(1.4)	69(98.6)	1(1.4)	69(98.6)
		없다	73	4(5.5)	69(94.5)	0(0.0)	73(100.0)
시간	있다	80	1(1.3)	79(98.8)	1(1.3)	79(98.8)	
	없다	63	4(6.3)	59(93.7)	0(0.0)	63(100.0)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2(4.5)	42(95.5)	0(0.0)	44(100.0)	
	미참여기관 이용	99	3(3.0)	96(97.0)	1(1.0)	98(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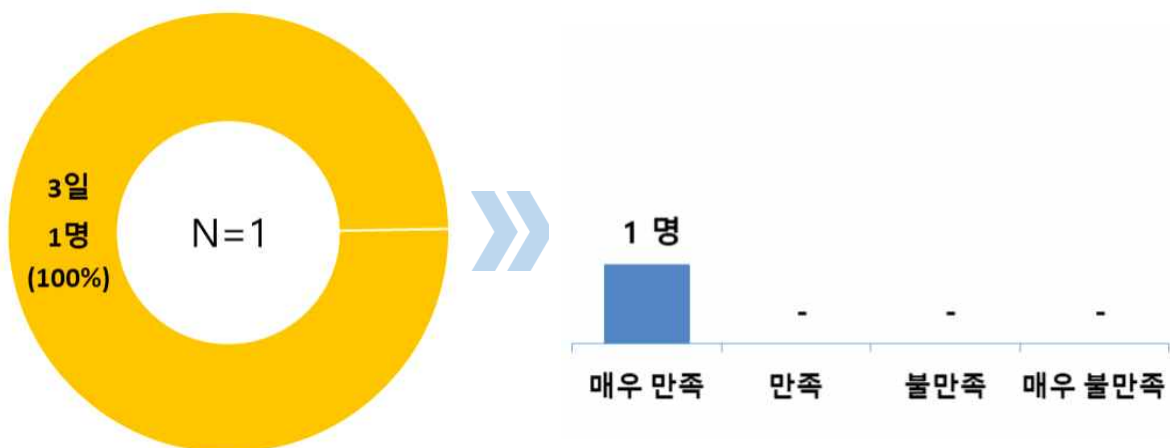
3-1)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일 수 및 만족도

단기보호 이용일 수는 1일 3명(60.0%), 3일 2명(40.0%) 순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매우 만족 2명(40.0%), 만족 3명(60.0%)으로 100점 환산 평균 80.0점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이용일 수 및 만족도(n=5)

종일방문요양 이용일 수는 3일 1명(100.0%)으로 나타났고 매우 만족 1명(100.0%)으로 100점 환산 평균 100점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이용일 수 및 만족도(n=1)

3-2)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를 통한 부양부담 완화 정도

치매가족휴가제 부양부담 완화에 긍정 평균 5건(100.0%), 부정 평균 0건(0%) 순으로 100점 환산 평균 78.7점으로 나타났다(표 10).

완화 정도는 정서적 부양부담(86.7점), 신체적 부양부담(80.0점), 시간적 부양부담(80.0점), 경제적 부양부담(73.4점), 사회적 부양부담(73.4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치매가족휴가제 부양부담 완화 정도

(n= 5)

구분	매우 도움됨 n(%)	도움됨 n(%)	도움되지 않음 n(%)	매우 도움되지 않음 n(%)	긍정 n(%)	부정 n(%)	100점 평균
평균	1.8(36.0)	3.2(64.0)	0(0.0)	0(0.0)	5(100.0)	0(0.0)	78.7
신체적 부양부담	2(40.0)	3(60.0)	0(0.0)	0(0.0)	5(100.0)	0(0.0)	80.0
정서적 부양부담	3(60.0)	2(40.0)	0(0.0)	0(0.0)	5(100.0)	0(0.0)	86.7
경제적 부양부담	1(20.0)	4(80.0)	0(0.0)	0(0.0)	5(100.0)	0(0.0)	73.4
사회적 부양부담	1(20.0)	4(80.0)	0(0.0)	0(0.0)	5(100.0)	0(0.0)	73.4
시간적 부양부담	2(40.0)	3(60.0)	0(0.0)	0(0.0)	5(100.0)	0(0.0)	80.0

3-3)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 차량 이동 시간

차량 이동(왕복기준) 시간은 30분 미만 3명(60.0%), 30~60분 미만 2명(40.0%)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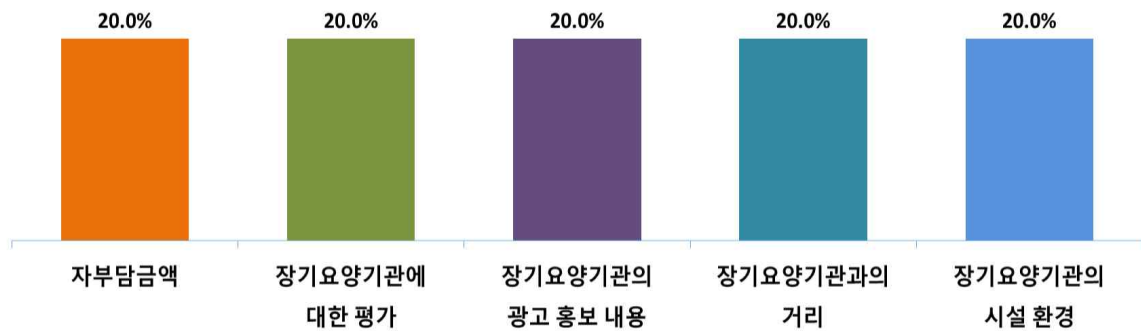
[표 11] 치매가족휴가제 차량 이동 시간

(n=5)

구분	N	30분 미만 n(%)	30~60분 미만 n(%)
응답	5	3(60.0)	2(40.0)

3-4)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시 가장 우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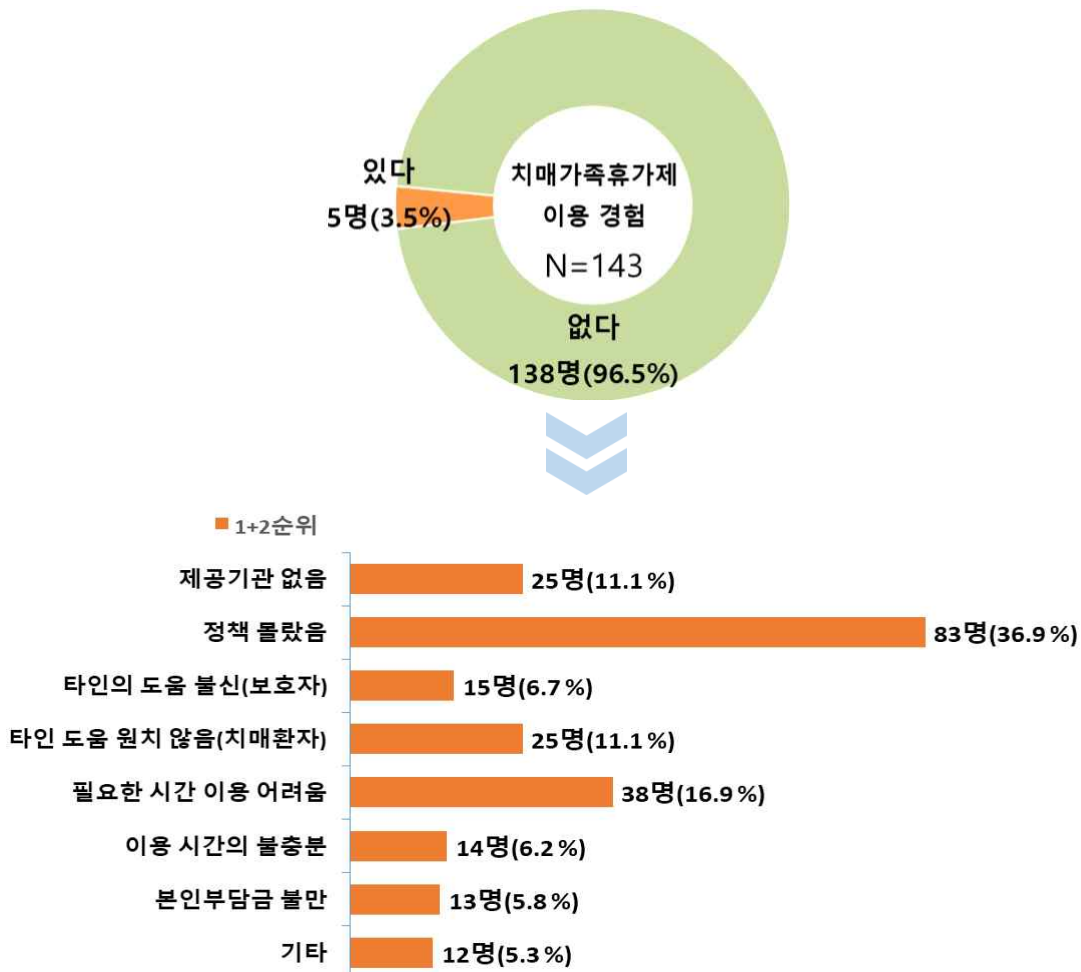
이용시 가장 우선 사항은 자부담금액 1명(20.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1명(20.0%), 장기요양기관의 광고 홍보 내용 1명(20.0%),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1명(20.0%),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환경 1명(20.0%)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가장 우선 사항(n=5)

3-5)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미이용 이유

치매가족휴가제 미이용 이유 1+2순위는 치매가족휴가제를 몰랐음 83명 (36.9%),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38명(16.9%), 지역 내 제공기관 없음 25명(11.1%), 치매환자가 가족 외 도움을 원치 않음 25명(11.1%), 보호자가 가족 외 타인의 도움 불신 15명(6.7%), 이용 시간의 불충분 14명(6.2%),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만 13명(5.8%), 기타 12명(5.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해당없음 3명, 이용 계획 없음 5명, 홍보 부족 1명이다(그림 5).



[그림 5]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경험 및 미이용 이유(n=138)

4)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의향 유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은 있다 122명(85.3%), 없다 21명(14.7%) 순이었다(표 12).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36명(85.7%), 여자 86명(85.1%)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21명(91.3%), 50대 40명(80.0%), 60대 45명(86.5%), 70세 이상 16명(88.9%)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16명(69.6%), 원주시 22명(91.7%), 홍천군 31명(83.8%), 횡성군 33명(84.6%), 철원군 15명(100.0%),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4명(100.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6명(100.0%), 6~10년 이하 45명(84.9%), 11~15년 이하 49명(83.1%), 16년 이상 22명(88.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111명(85.4%), 경감대상자 8명(88.9%), 기초생활수급자 3명(75.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67명(87.0%), 비동거 55명(83.3%)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8명(80.0%), 자녀 62명(88.6%), 며느리 24명(88.9%), 사위 1명(50.0%), 손자녀 3명(100.0%), 친인척 5명(83.3%),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15명(75.0%), 기타 4명(8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65명(86.7%), 6~10시간 이하 34명(81.0%), 11~15시간 이하 13명(100.0%), 16시간 이상 10명(76.9%)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79명(85.9%), 없다 43명(84.3%)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80명(83.3%), 없다 42명(89.4%)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51명(82.3%), 없다 71명(87.7%)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61명(87.1%), 없다 61명(83.6%)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66명(82.5%), 없다 56명(88.9%)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7명(84.1%), 미참여기관 이용 85명(85.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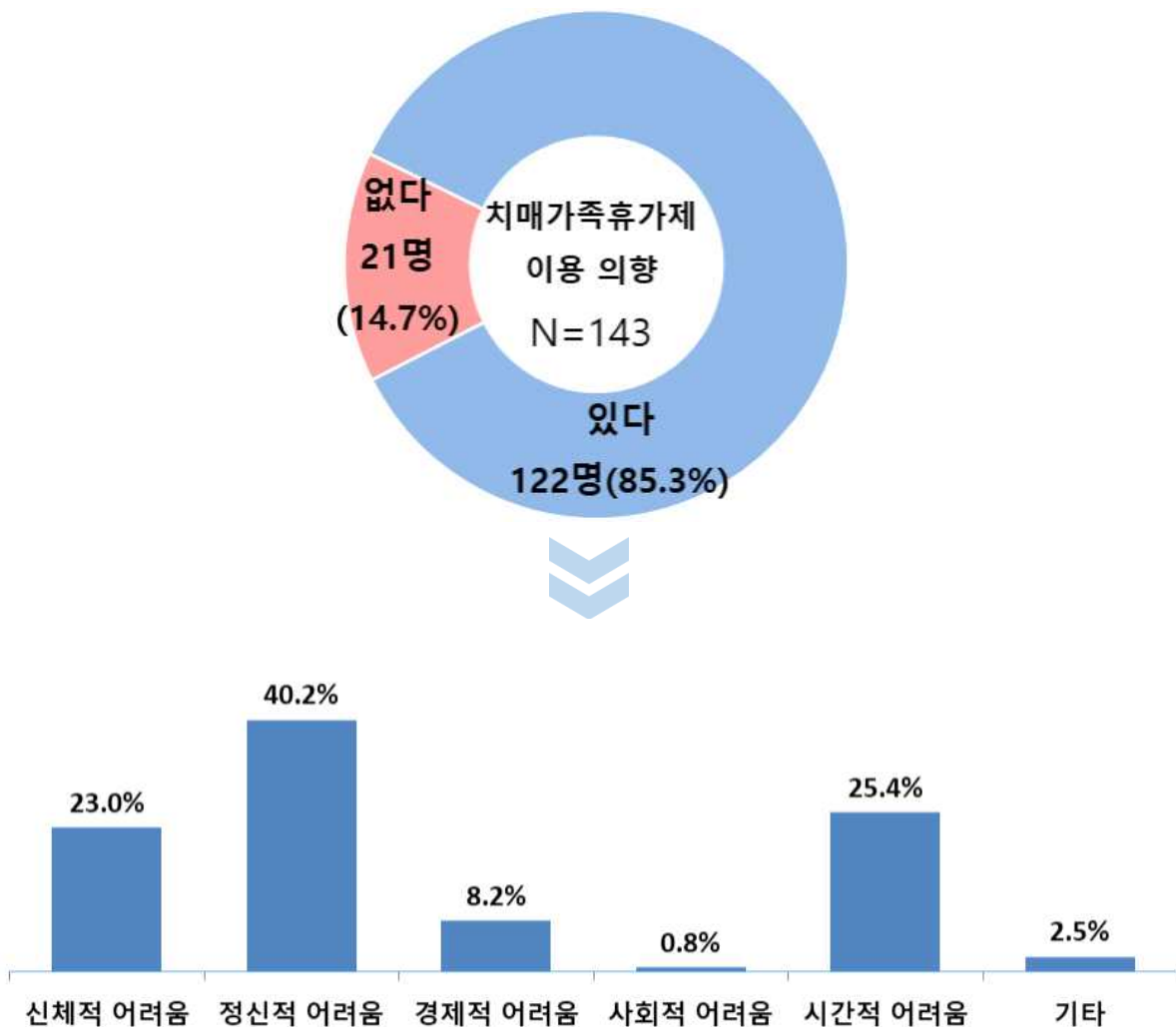
[표 12]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유무

(N=143)

구분		N	있다 n(%)	없다 n(%)	
전체		143	105(73.4)	38(26.6)	
성별	남자	42	36(85.7)	6(14.3)	
	여자	101	86(85.1)	15(14.9)	
나이	49세 이하	23	21(91.3)	2(8.7)	
	50대	50	40(80.0)	10(20.0)	
	60대	52	45(86.5)	7(13.5)	
	70세 이상	18	16(88.9)	2(11.1)	
거주지역	춘천시	23	16(69.6)	7(30.4)	
	원주시	24	22(91.7)	2(8.3)	
	홍천군	37	31(83.8)	6(16.2)	
	횡성군	39	33(84.6)	6(15.4)	
	철원군	15	15(100.0)	0(0.0)	
	화천군	1	1(100.0)	0(0.0)	
	타 시도	4	4(100.0)	0(0.0)	
교육연수	5년 이하	6	6(100.0)	0(0.0)	
	6~10년 이하	53	45(84.9)	8(15.1)	
	11~15년 이하	59	49(83.1)	10(16.9)	
	16년 이상	25	22(88.0)	3(12.0)	
경제수준	해당없음	130	111(85.4)	19(14.6)	
	경감대상자	9	8(88.9)	1(11.1)	
	기초생활수급자	4	3(75.0)	1(25.0)	
치매환자 동거	동거	77	67(87.0)	10(13.0)	
	비동거	66	55(83.3)	11(16.7)	
치매환자 관계	배우자	10	8(80.0)	2(20.0)	
	자녀	70	62(88.6)	8(11.4)	
	며느리	27	24(88.9)	3(11.1)	
	사위	2	1(50.0)	1(50.0)	
	손자녀	3	3(100.0)	0(0.0)	
	친인척	6	5(83.3)	1(16.7)	
	간병인, 요양보호사	20	15(75.0)	5(25.0)	
	기타	5	4(80.0)	1(20.0)	
치매환자 일 돌봄시간	5시간 이하	75	65(86.7)	10(13.3)	
	6~10시간 이하	42	34(81.0)	8(19.0)	
	11~15시간 이하	13	13(100.0)	0(0.0)	
	16시간 이상	13	10(76.9)	3(23.1)	
돌봄 어려움 여부	신체	있다	92	79(85.9)	13(14.1)
		없다	51	43(84.3)	8(15.7)
	정서	있다	96	80(83.3)	16(16.7)
		없다	47	42(89.4)	5(10.6)
	경제	있다	62	51(82.3)	11(17.7)
		없다	81	71(87.7)	10(12.3)
	사회	있다	70	61(87.1)	9(12.9)
		없다	73	61(83.6)	12(16.4)
	시간	있다	80	66(82.5)	14(17.5)
		없다	63	56(88.9)	7(11.1)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37(84.1)	7(15.9)
		미참여기관 이용	99	85(85.9)	14(14.1)

4-1)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의향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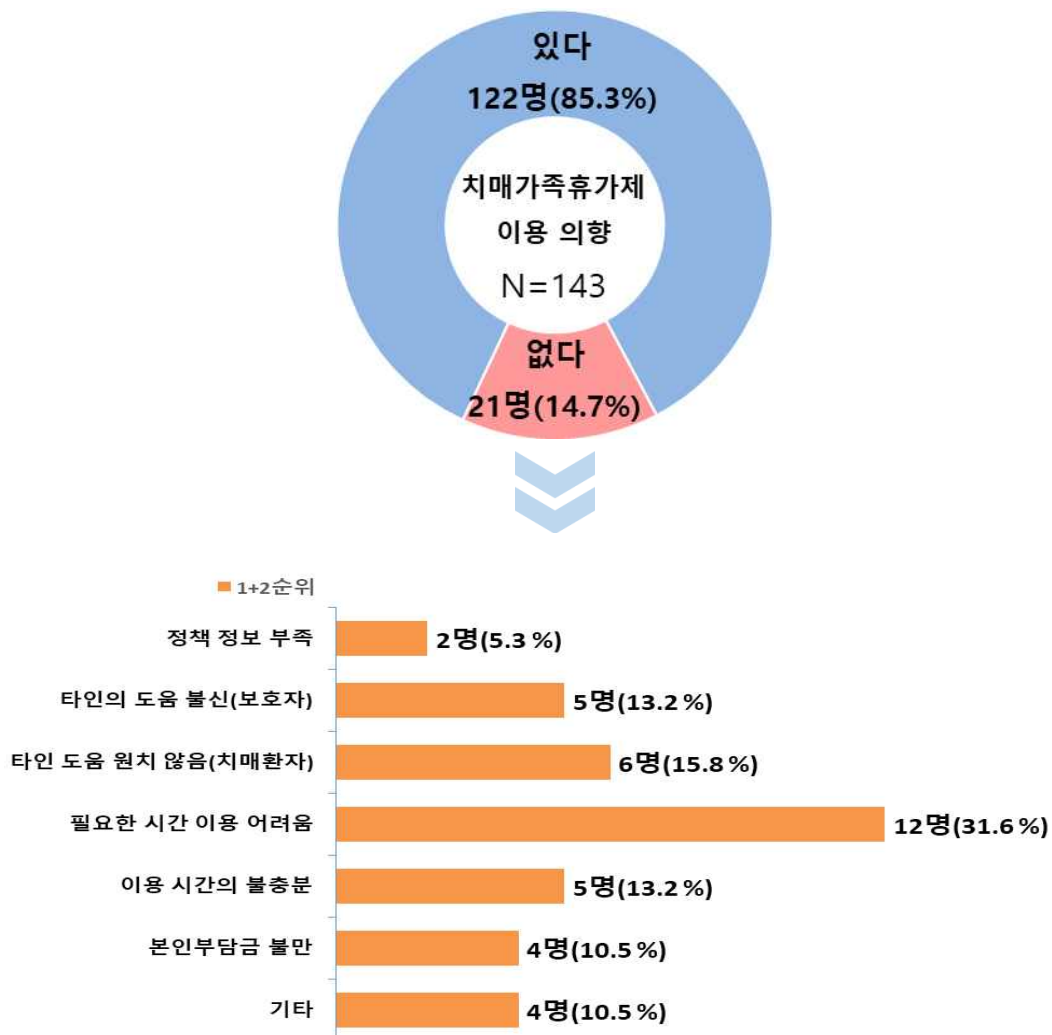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있다 122명의 이유는 정신적 어려움 49명(40.2%), 시간적 어려움 31명(25.4%), 신체적 어려움 28명(23.0%), 경제적 어려움 10명(8.2%), 기타 3명(2.5%), 사회적 어려움 1명(0.8%)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는 돌봄 공백 발생하는 여행(2명) 및 출장(1명)이었다(그림 6).



[그림 6]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유무 및 이용의향 있는 이유(n=122)

4-2)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의향 없는 이유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없는 이유 1+2순위는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12명(31.6%), 치매환자가 가족 외 도움을 원치 않음 6명(15.8%), 보호자가 가족 외 타인의 도움 불신 5명(13.2%),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만 4명(10.5%), 기타 4명(10.5%), 치매가족휴가제 정보 부족 2명(5.3%)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는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으로 충분(1명), 무응답 3명이었다(그림 7).



[그림 7]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유무 및 이용의향 없는 이유(n=21)

5)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은 기관의 시설 환경 54명(37.8%), 자부담금액 44명(30.8%), 기관평가 33명(23.1%), 기관과의 거리 9명(6.3%), 광고 홍보 내용 3명(2.1%), 기타 2명(1.4%), 지인의 소개 및 추천 1명(0.7%) 순이고 기타는 환자 의견,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으로 응답했다(표 13).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기관의 시설 환경으로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3명(31.0%), 여자 41명(40.6%)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9명(39.1%), 50대 19명(38.0%), 60대 22명(42.3%), 70세 이상 4명(22.2%)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8명(34.8%), 원주시 4명(16.7%), 홍천군 17명(45.9%), 횡성군 17명(43.6%), 철원군 6명(40.0%),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1명(25.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2명(33.3%), 6~10년 이하 19명(35.8%), 11~15년 이하 24명(40.7%), 16년 이상 9명(36.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49명(37.7%), 경감대상자 4명(44.4%), 기초생활수급자 1명(25.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31명(40.3%), 비동거 23명(34.8%)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4명(40.0%), 자녀 29명(41.4%), 며느리 10명(37.0%), 사위 1명(50.0%),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8명(40.0%), 기타 2명(4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28명(37.3%), 6~10시간 이하 15명(35.7%), 11~15시간 이하 5명(38.5%), 16시간 이상 6명(46.2%)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38명(41.3%), 없다 16명(31.4%)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39명(40.6%), 없다 15명(31.9%)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22명(35.5%), 없다 32명(39.5%)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31명(44.3%), 없다 23명(31.5%)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39명(48.8%), 없다 15명(23.8%)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21명(47.7%), 미참여기관 이용 33명(33.3%)이었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자부담금액으로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7명(40.5%), 여자 27명(26.7%)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6명(26.1%), 50대 12명(24.0%), 60대 18명(34.6%), 70세 이상 8명(44.4%)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9명(39.1%), 원주시 11명(45.8%), 홍천군 13명(35.1%), 횡성군 8명(20.5%), 철원군 2명(13.3%), 타 시도 1명(25.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2명(33.3%), 6~10년 이하 20명(37.7%), 11~15년 이하 16명(27.1%), 16년 이상 6명(24.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40명(30.8%), 경감대상자 4명(44.4%)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23명(29.9%), 비동거 21명(31.8%)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3명(30.0%), 자녀 21명(30.0%), 며느리 5명(18.5%), 손자녀 1명(33.3%), 친인척 3명(50.0%),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8명(40.0%), 기타 3명(6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23명(30.7%), 6~10시간 이하 14명(33.3%), 11~15시간 이하 3명(23.1%), 16시간 이상 4명(30.8%)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30명(32.6%), 없다 14명(27.5%)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28명(29.2%), 없다 16명(34.0%)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22명(35.5%), 없다 22명(27.2%)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18명(25.7%), 없다 26명(35.6%)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21명(26.3%), 없다 23명(36.5%)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10명(22.7%), 미참여기관 이용 34명(34.3%)이었다.

6)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일 적정 여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하다 111명(77.6%), 적절하지 않다 32명(22.4%) 순이었다(표 14).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33명(78.6%), 여자 78명(77.2%)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17명(73.9%), 50대 34명(68.0%), 60대 43명(82.7%), 70세 이상 17명(94.4%)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17명(73.9%), 원주시 19명(79.2%), 홍천군 30명(81.1%), 횡성군 29명(74.4%), 철원군 13명(86.7%),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2명(50.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6명(100.0%), 6~10년 이하 43명(81.1%), 11~15년 이하 48명(81.4%), 16년 이상 14명(56.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100명(76.9%), 경감대상자 7명(77.8%), 기초생활수급자 4명(100.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67명(87.0%), 비동거 44명(66.7%)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10명(100.0%), 자녀 53명(75.7%), 며느리 20명(74.1%), 사위 2명(100.0%), 손자녀 3명(100.0%), 친인척 6명(100.0%),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13명(65.0%), 기타 4명(8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56명(74.7%), 6~10시간 이하 32명(76.2%), 11~15시간 이하 13명(100.0%), 16시간 이상 10명(76.9%)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73명(79.3%), 없다 38명(74.5%)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80명(83.3%), 없다 31명(66.0%)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49명(79.0%), 없다 62명(76.5%)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53명(75.7%), 없다 58명(79.5%)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62명(77.5%), 없다 49명(77.8%)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9명(88.6%), 미참여기관 이용 72명(72.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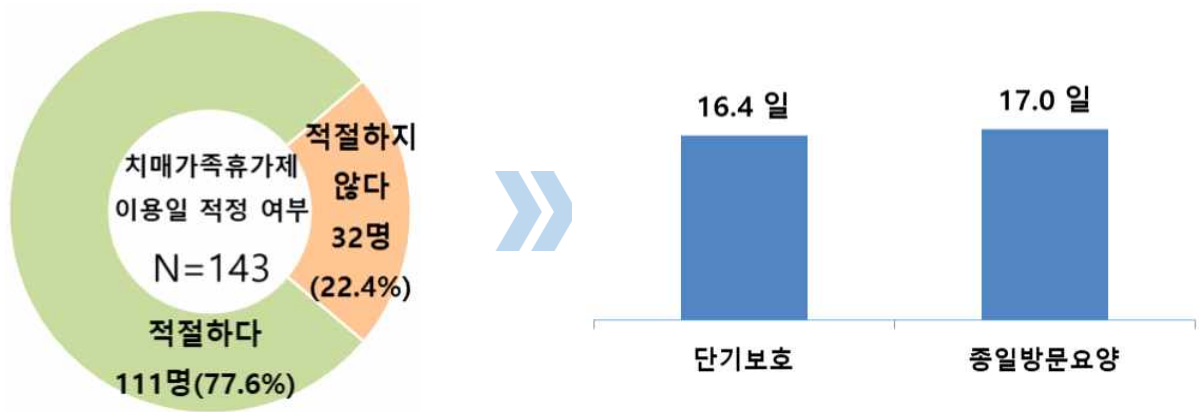
[표 14]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정 여부

(N=143)

구분		N	적절하다 n(%)	적절하지 않다 n(%)	
전체		143	111(77.6)	32(22.4)	
성별	남자	42	33(78.6)	9(21.4)	
	여자	101	78(77.2)	23(22.8)	
나이	49세 이하	23	17(73.9)	6(26.1)	
	50대	50	34(68.0)	16(32.0)	
	60대	52	43(82.7)	9(17.3)	
	70세 이상	18	17(94.4)	1(5.6)	
거주지역	춘천시	23	17(73.9)	6(26.1)	
	원주시	24	19(79.2)	5(20.8)	
	홍천군	37	30(81.1)	7(18.9)	
	횡성군	39	29(74.4)	10(25.6)	
	철원군	15	13(86.7)	2(13.3)	
	화천군	1	1(100.0)	0(0.0)	
	타 시도	4	2(50.0)	2(50.0)	
교육연수	5년 이하	6	6(100.0)	0(0.0)	
	6~10년 이하	53	43(81.1)	10(18.9)	
	11~15년 이하	59	48(81.4)	11(18.6)	
	16년 이상	25	14(56.0)	11(44.0)	
경제수준	해당없음	130	100(76.9)	30(23.1)	
	경감대상자	9	7(77.8)	2(22.2)	
	기초생활수급자	4	4(100.0)	0(0.0)	
치매환자 동거	동거	77	67(87.0)	10(13.0)	
	비동거	66	44(66.7)	22(33.3)	
치매환자 관계	배우자	10	10(100.0)	0(0.0)	
	자녀	70	53(75.7)	17(24.3)	
	며느리	27	20(74.1)	7(25.9)	
	사위	2	2(100.0)	0(0.0)	
	손자녀	3	3(100.0)	0(0.0)	
	친인척	6	6(100.0)	0(0.0)	
	간병인, 요양보호사	20	13(65.0)	7(35.0)	
	기타	5	4(80.0)	1(20.0)	
치매환자 일 돌봄시간	5시간 이하	75	56(74.7)	19(25.3)	
	6~10시간 이하	42	32(76.2)	10(23.8)	
	11~15시간 이하	13	13(100.0)	0(0.0)	
	16시간 이상	13	10(76.9)	3(23.1)	
돌봄 어려움 여부	신체	있다	92	73(79.3)	19(20.7)
		없다	51	38(74.5)	13(25.5)
	정서	있다	96	80(83.3)	16(16.7)
		없다	47	31(66.0)	16(34.0)
	경제	있다	62	49(79.0)	13(21.0)
		없다	81	62(76.5)	19(23.5)
	사회	있다	70	53(75.7)	17(24.3)
		없다	73	58(79.5)	15(20.5)
	시간	있다	80	62(77.5)	18(22.5)
		없다	63	49(77.8)	14(22.2)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39(88.6)	5(11.4)
		미참여기관 이용	99	72(72.7)	27(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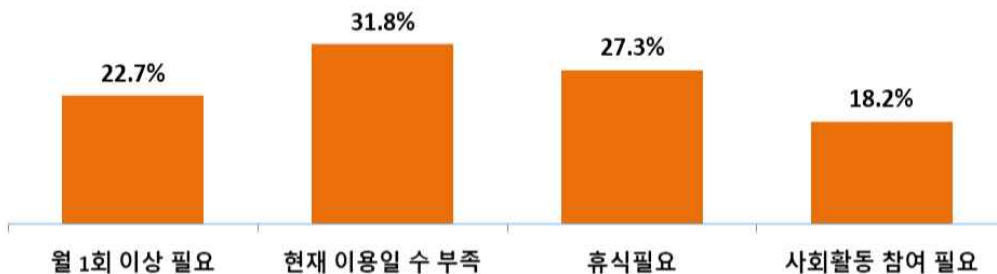
6-1)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적정 이용일 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하지 않다 32명이 제시한 단기보호 적절 이용일은 평균 16.4 ± 6.45 일, 종일방문요양 적절 이용일은 평균 17.0 ± 8.64 일로 나타났다(그림 8).



[그림 8] 치매가족휴가제 적정 여부 및 적정 이용일 수(n=32)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작성한 내용은 현재 이용일 수 부족 7명(31.8%), 휴식필요 6명(27.3%), 월 1회 이상 필요 5명(22.7%), 사회활동 참여 필요 4명(18.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9).



[그림 9]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하지 않은 사유(n=22)

7)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정성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은 긍정 응답 113명(79.0%), 부정 응답 30명(21.0%) 순으로 100점 환산 평균 63.7점으로 나타났다(표 15).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긍정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32명(76.2%), 여자 81명(80.2%)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22명(95.7%), 50대 38명(76.0%), 60대 40명(76.9%), 70세 이상 13명(72.2%)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2명(95.7%), 원주시 18명(75.0%), 홍천군 24명(64.9%), 횡성군 32명(82.1%), 철원군 13명(86.7%),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3명(75.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5명(83.3%), 6~10년 이하 38명(71.7%), 11~15년 이하 47명(79.7%), 16년 이상 23명(92.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103명(79.2%), 경감대상자 6명(66.7%), 기초생활수급자 4명(100.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58명(75.3%), 비동거 55명(83.3%)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5명(50.0%), 자녀 52명(74.3%), 며느리 22명(81.5%), 사위 2명(100.0%), 손자녀 2명(66.7%), 친인척 6명(100.0%),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19명(95.0%), 기타 5명(10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59명(78.7%), 6~10시간 이하 35명(83.3%), 11~15시간 이하 9명(69.2%), 16시간 이상 10명(76.9%)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68명(73.9%), 없다 45명(88.2%)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73명(76.0%), 없다 40명(85.1%)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44명(71.0%), 없다 69명(85.2%)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52명(74.3%), 없다 61명(83.6%)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60명(75.0%), 없다 53명(84.1%)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2명(72.7%), 미참여기관 이용 81명(81.8%)이었다.

[표 15] 치매가족휴가제 자부담 비율 적정성

(N=143)

구분	N	매우 적절하다 n(%)	적절하다 n(%)	적절하지 않다 n(%)	매우 적절하지 않다 n(%)	긍정 n(%)	부정 n(%)	100점 평균		
전체	143	18(12.6)	95(66.4)	29(20.3)	1(0.7)	113(79.0)	30(21.0)	63.7		
성별	남자	42	8(19.0)	24(57.1)	10(23.8)	0(0.0)	32(76.2)	10(23.8)	65.1	
	여자	101	10(9.9)	71(70.3)	19(18.8)	1(1.0)	81(80.2)	20(19.8)	63.1	
나이	49세 이하	23	2(8.7)	20(87.0)	1(4.3)	0(0.0)	22(95.7)	1(4.3)	68.1	
	50대	50	8(16.0)	30(60.0)	12(24.0)	0(0.0)	38(76.0)	12(24.0)	64.0	
	60대	52	5(9.6)	35(67.3)	11(21.2)	1(1.9)	40(76.9)	12(23.1)	61.6	
	70세 이상	18	3(16.7)	10(55.6)	5(27.8)	0(0.0)	13(72.2)	5(27.8)	63.0	
거주지역	춘천시	23	1(4.3)	21(91.3)	1(4.3)	0(0.0)	22(95.7)	1(4.3)	66.7	
	원주시	24	9(37.5)	9(37.5)	6(25.0)	0(0.0)	18(75.0)	6(25.0)	70.8	
	홍천군	37	2(5.4)	22(59.5)	13(35.1)	0(0.0)	24(64.9)	13(35.1)	56.8	
	횡성군	39	4(10.3)	28(71.8)	7(17.9)	0(0.0)	32(82.1)	7(17.9)	64.1	
	철원군	15	1(6.7)	12(80.0)	2(13.3)	0(0.0)	13(86.7)	2(13.3)	64.5	
	화천군	1	1(100.0)	0(0.0)	0(0.0)	0(0.0)	1(100.0)	0(0.0)	100.0	
	타 시도	4	0(0.0)	3(75.0)	0(0.0)	1(25.0)	3(75.0)	1(25.0)	50.0	
	교육연수	5년 이하	6	0(0.0)	5(83.3)	1(16.7)	0(0.0)	5(83.3)	1(16.7)	61.1
6~10년 이하	53	8(15.1)	30(56.6)	15(28.3)	0(0.0)	38(71.7)	15(28.3)	62.3		
11~15년 이하	59	8(13.6)	39(66.1)	11(18.6)	1(1.7)	47(79.7)	12(20.3)	63.9		
16년 이상	25	2(8.0)	21(84.0)	2(8.0)	0(0.0)	23(92.0)	2(8.0)	66.7		
경제수준	해당없음	130	17(13.1)	86(66.2)	26(20.0)	1(0.8)	103(79.2)	27(20.8)	63.9	
	경감대상자	9	1(11.1)	5(55.6)	3(33.3)	0(0.0)	6(66.7)	3(33.3)	59.3	
	기초생활수급자	4	0(0.0)	4(100.0)	0(0.0)	0(0.0)	4(100.0)	0(0.0)	66.7	
치매환자 동거	동거	77	6(7.8)	52(67.5)	18(23.4)	1(1.3)	58(75.3)	19(24.7)	60.6	
	비동거	66	12(18.2)	43(65.2)	11(16.7)	0(0.0)	55(83.3)	11(16.7)	67.2	
치매환자 관계	배우자	10	1(10.0)	4(40.0)	5(50.0)	0(0.0)	5(50.0)	5(50.0)	53.3	
	자녀	70	8(11.4)	44(62.9)	17(24.3)	1(1.4)	52(74.3)	18(25.7)	61.4	
	며느리	27	0(0.0)	22(81.5)	5(18.5)	0(0.0)	22(81.5)	5(18.5)	60.5	
	사위	2	0(0.0)	2(100.0)	0(0.0)	0(0.0)	2(100.0)	0(0.0)	66.7	
	손자녀	3	0(0.0)	2(66.7)	1(33.3)	0(0.0)	2(66.7)	1(33.3)	55.6	
	친인척	6	3(50.0)	3(50.0)	0(0.0)	0(0.0)	6(100.0)	0(0.0)	83.4	
	간병인 요양보호사	20	4(20.0)	15(75.0)	1(5.0)	0(0.0)	19(95.0)	1(5.0)	71.7	
	기타	5	2(40.0)	3(60.0)	0(0.0)	0(0.0)	5(100.0)	0(0.0)	80.0	
치매환자 일 돌봄시간	5시간 이하	75	12(16.0)	47(62.7)	15(20.0)	1(1.3)	59(78.7)	16(21.3)	64.5	
	6~10시간 이하	42	5(11.9)	30(71.4)	7(16.7)	0(0.0)	35(83.3)	7(16.7)	65.1	
	11~15시간 이하	13	1(7.7)	8(61.5)	4(30.8)	0(0.0)	9(69.2)	4(30.8)	59.0	
	16시간 이상	13	0(0.0)	10(76.9)	3(23.1)	0(0.0)	10(76.9)	3(23.1)	59.0	
부담 여부와 관련 여부	신체	있다	92	14(15.2)	54(58.7)	23(25.0)	1(1.1)	68(73.9)	24(26.1)	62.7
		없다	51	4(7.8)	41(80.4)	6(11.8)	0(0.0)	45(88.2)	6(11.8)	65.4
	정서	있다	96	12(12.5)	61(63.5)	22(22.9)	1(1.0)	73(76.0)	23(24.0)	62.5
		없다	47	6(12.8)	34(72.3)	7(14.9)	0(0.0)	40(85.1)	7(14.9)	66.0
	경제	있다	62	8(12.9)	36(58.1)	18(29.0)	0(0.0)	44(71.0)	18(29.0)	61.3
		없다	81	10(12.3)	59(72.8)	11(13.6)	1(1.2)	69(85.2)	12(14.8)	65.5
	사회	있다	70	10(14.3)	42(60.0)	18(25.7)	0(0.0)	52(74.3)	18(25.7)	62.9
		없다	73	8(11.0)	53(72.6)	11(15.1)	1(1.4)	61(83.6)	12(16.4)	64.4
	시간	있다	80	9(11.3)	51(63.8)	20(25.0)	0(0.0)	60(75.0)	20(25.0)	62.1
		없다	63	9(14.3)	44(69.8)	9(14.3)	1(1.6)	53(84.1)	10(15.9)	65.6
	시범사업 참여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2(4.5)	30(68.2)	11(25.0)	1(2.3)	32(72.7)	12(27.3)	58.3
		미참여기관 이용	99	16(16.2)	65(65.7)	18(18.2)	0(0.0)	81(81.8)	18(18.2)	66.0

7-1)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정성 차이

치매환자 동거 여부에 따른 자부담 비율 적정성 차이는 $\chi^2=4.724(.193)$ 이고 가족 여부에 따른 자부담 비율 적정성 차이는 $\chi^2=7.447(.059)$ 로 나타나 변수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응답자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교차분석

(N=143)							
구분	N	매우 적절하다 n(%)	적절하다 n(%)	적절하지 않다 n(%)	매우 적절하지 않다 n(%)	$\chi^2(p)$	
전체	143	18(12.6)	95(66.4)	29(20.3)	1(0.7)		
치매환자 동거 여부	동거	77	6(7.8)	52(67.5)	18(23.4)	1(1.3)	4.724(.193)
	비동거	66	12(8.3)	43(65.2)	11(16.7)	0(0.0)	
치매환자 가족 여부	가족	112	9(8.0)	74(66.1)	28(25.0)	1(0.9)	7.447(.059)
	비가족	31	9(29.0)	21(67.7)	1(3.2)	0(0.0)	

* 더미변수: 치매환자 가족 여부(1=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녀, 2=친인척, 간병인, 요양보호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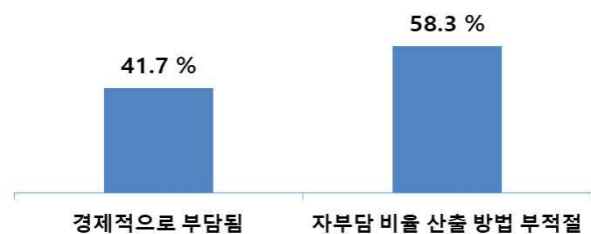
7-2)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절 자부담 비율 및 작성 이유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부정 응답한 30명(21.0%) 중 28명이 제시한 응답자의 적절 자부담 비율은 $10.1 \pm 3.27\%$ 이고(표 17), 부정 응답 이유는 자부담 비율 산출 방법 부적절 7명(58.3%), 경제적으로 부담됨 5명(41.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0).

[표 17] 응답자 적절 자부담 비율

N	M	SD
28	10.1	3.3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부정응답 이유(n=14)



[그림 10] 장기요양급여 적절 자부담 비율 및 작성 이유

8)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책 필요성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은 긍정 응답 136명(95.1%), 부정 응답 7명(4.9%) 순으로 100점 환산 평균 78.8점으로 나타났다(표 18).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 긍정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32명(76.2%), 여자 81명(80.2%)이었고 나이는 49세 이하 22명(95.7%), 50대 38명(76.0%), 60대 40명(76.9%), 70세 이상 13명(72.2%)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2명(95.7%), 원주시 18명(75.0%), 홍천군 24명(64.9%), 횡성군 32명(82.1%), 철원군 13명(86.7%), 화천군 1명(100.0%), 타 시도 3명(75.0%)이었다.

교육연수는 5년 이하 5명(83.3%), 6~10년 이하 38명(71.7%), 11~15년 이하 47명(79.7%), 16년 이상 23명(92.0%)이었고 경제수준은 해당없음 103명(79.2%), 경감대상자 6명(66.7%), 기초생활수급자 4명(100.0%)이었다.

치매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58명(75.3%), 비동거 55명(83.3%)이었고 치매환자와 관계는 배우자 5명(50.0%), 자녀 52명(74.3%), 며느리 22명(81.5%), 사위 2명(100.0%), 손자녀 2명(66.7%), 친인척 6명(100.0%),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19명(95.0%), 기타 5명(100.0%)이었다.

일 평균 돌봄 시간은 5시간 이하 59명(78.7%), 6~10시간 이하 35명(83.3%), 11~15시간 이하 9명(69.2%), 16시간 이상 10명(76.9%)이었다.

돌봄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 있다 68명(73.9%), 없다 45명(88.2%)이었고 정서적 어려움 있다 73명(76.0%), 없다 40명(85.1%)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 44명(71.0%), 없다 69명(85.2%)이었고 사회적 어려움 있다 52명(74.3%), 없다 61명(83.6%)이었고 시간적 어려움 있다 60명(75.0%), 없다 53명(84.1%)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2명(72.7%), 미참여기관 이용 81명(81.8%)이었다.

8-1)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책 필요성 차이

치매환자 동거 여부에 따른 정책 필요성 차이는 $\chi^2=1.482(.686)$ 이고 가족 여부에 따른 정책 필요성 차이는 $\chi^2=2.411(.492)$ 로 나타나 변수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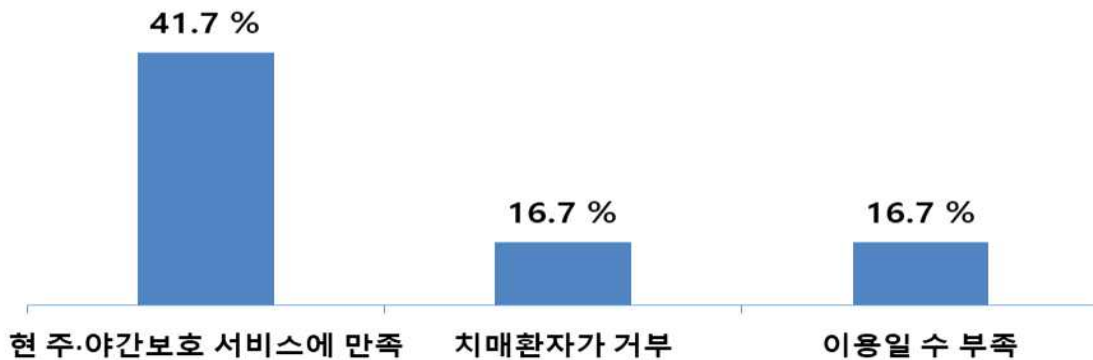
[표 1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 교차분석

(N=143)							
구분	N	매우 필요하다 n(%)	필요하다 n(%)	필요하지 않다 n(%)	매우 필요하지 않다 n(%)	$\chi^2(p)$	
전체	143	12(10.2)	77(65.3)	28(23.7)	1(0.8)		
치매환자 동거 여부	동거	77	33(42.9)	39(50.6)	4(5.2)	1(1.3)	1.482(.686)
	비동거	66	27(40.9)	37(56.1)	2(3.0)	0(0.0)	
치매환자 가족 여부	가족	112	47(42.0)	58(51.8)	6(5.4)	1(0.9)	2.411(.492)
	비가족	31	13(41.9)	18(58.1)	0(0.0)	0(0.0)	

* 더미변수: 치매환자 가족 여부(1=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녀, 2=친인척, 간병인, 요양보호사, 기타)

8-2)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책 필요 부정 응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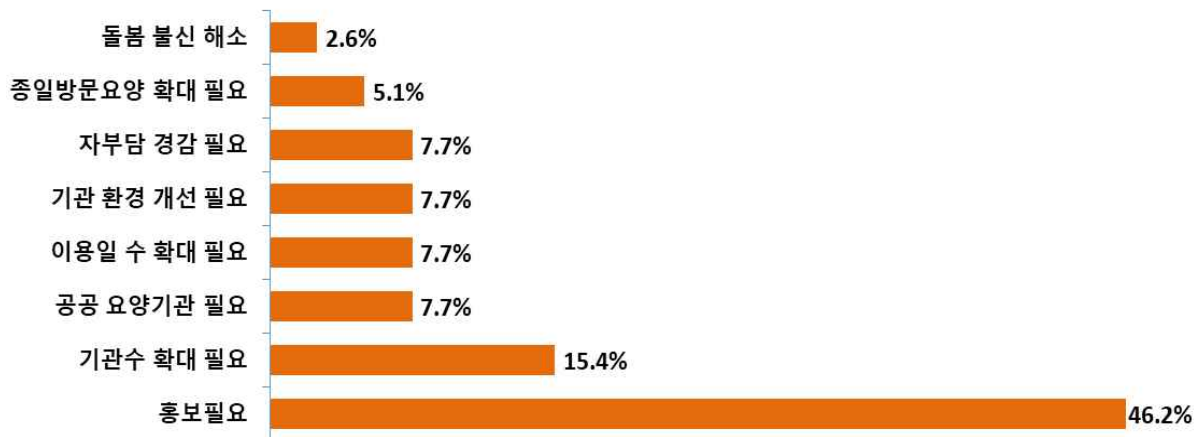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 부정 응답한 7명(4.9%) 중 6명이 제시한 부정 응답 이유는 현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만족 4명(66.7%), 치매환자가 거부 1명(16.7%), 이용일 수 부족 1명(16.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1] 자부담 비율 부정 응답 이유(n=6)

9)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활성화 방안 의견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39명의 내용은 홍보필요 18명(46.2%), 기관 수 확대 필요 6명(15.4%), 공공 이용기관 필요 3명(7.7%), 이용일 수 확대 필요 3명(7.7%), 기관 환경개선 필요 3명(7.7%), 자부담 경감 필요 3명(7.7%), 종일방문요양 확대 필요 2명(5.1%), 돌봄 불신 해소 1명(2.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2]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의견(n=39)

10) 치매환자 돌봄 어려움 유무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응답

본 조사 결과 치매가족휴가제 응답에 따른 치매환자 돌봄 어려움 비율은 <표 20>과 같다.

치매가족휴가제 인지 여부에서 단기보호 인지는 신체적 어려움 없다 22명(43.1%), 정서적 어려움 없다 19명(40.4%), 경제적 어려움 없다 34명(42.0%), 사회적 어려움 있다 27명(38.6%), 시간적 어려움 있다 32명(40.0%)에게 높게 나타났다. 종일방문요양 인지는 신체적 어려움 없다 16명(31.4%), 정서적 어려움 있다 29명(30.2%), 경제적 어려움 없다 27명(33.3%), 사회적 어려움 없다 22명(30.1%), 시간적 어려움 있다 24명(30.0%)에게 높게 나타났다.

정보습득 경험 유무는 신체적 어려움 없다 39명(76.5%), 정서적 어려움 없다 35명(74.5%), 경제적 어려움 있다 46명(74.2%), 사회적 어려움 있다 54명(77.1%), 시간적 어려움 있다 59명(73.8%)에게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경험에서 단기보호 있다는 신체적 어려움 있다 4명(4.3%), 정서적 어려움 없다 2명(4.3%), 경제적 어려움 없다 5명(6.2%), 사회적 어려움 없다 4명(5.5%), 시간적 어려움 없다 4명(6.3%)에게 높게 나타났다. 종일방문요양 있다는 신체적 어려움 있다 1명(1.1%), 정서적 어려움 없다 1명(2.1%), 경제적 어려움 없다 1명(1.2%), 사회적 어려움 있다 1명(1.4%), 시간적 어려움 있다 1명(1.3%)에게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있다는 신체적 어려움 있다 79명(85.9%), 정서적 어려움 없다 42명(89.4%), 경제적 어려움 없다 71명(87.7%), 사회적 어려움 있다 61명(87.1%), 시간적 어려움 없다 56명(8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걱정 여부 적절하다는 신체적 어려움 있다 73명(79.3%), 정서적 어려움 있다 80명(83.3%), 경제적 어려움 있다 49명(79.0%), 사회적 어려움 없다 58명(79.5%), 시간적 어려움 없다 49명(77.8%)에게 높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부담 비율 적절성 긍정 응답은 신체적 어려움 없다 45명(88.2%), 정서적 어려움 없다 40명(85.1%), 경제적 어려움 없다 69명(85.2%), 사회적 어려움 없다 61명(83.6%), 시간적 어려움 없다 53명(84.1%)에게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 긍정 응답은 신체적 어려움 없다 45명(88.2%), 정서적 어려움 없다 40명(85.1%), 경제적 어려움 없다 69명(85.2%), 사회적 어려움 없다 61명(83.6%), 시간적 어려움 없다 53명(84.1%)에게 높게 나타났다.

[표 20] 치매가족휴가제 응답에 따른 치매환자 돌봄 어려움

(N=143)

구분	신체적 어려움 n(%)		정서적 어려움 n(%)		경제적 어려움 n(%)		사회적 어려움 n(%)		시간적 어려움 n(%)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N)	92	51	96	47	62	81	70	73	80	63		
인지여부	단기 보호	인지	33 (35.9)	22 (43.1)	36 (37.5)	19 (40.4)	21 (33.9)	34 (42.0)	27 (38.6)	28 (38.4)	32 (40.0)	23 (36.5)
		비인지	59 (64.1)	29 (56.9)	60 (62.5)	28 (59.6)	41 (66.1)	47 (58.0)	43 (61.4)	45 (61.6)	48 (60.0)	40 (63.5)
	중·장기 방문 요양	인지	26 (28.3)	16 (31.4)	29 (30.2)	13 (27.7)	15 (24.2)	27 (33.3)	20 (28.6)	22 (30.1)	24 (30.0)	18 (28.6)
		비인지	66 (71.7)	35 (68.6)	67 (69.8)	34 (72.3)	47 (75.8)	54 (66.7)	50 (71.4)	51 (69.9)	56 (70.0)	45 (71.4)
정보습득 경험	있다	66 (71.7)	39 (76.5)	70 (72.9)	35 (74.5)	46 (74.2)	59 (72.8)	54 (77.1)	51 (69.9)	59 (73.8)	46 (73.0)	
	없다	26 (28.3)	12 (23.5)	26 (27.1)	12 (25.5)	16 (25.8)	22 (27.2)	16 (22.9)	22 (30.1)	21 (26.3)	17 (27.0)	
이용정도	단기 보호	있다	4 (4.3)	1 (2.0)	3 (3.1)	2 (4.3)	0 (0.0)	5 (6.2)	1 (1.4)	4 (5.5)	1 (1.3)	4 (6.3)
		없다	88 (95.7)	50 (98.0)	93 (96.9)	45 (95.7)	62 (100.0)	76 (93.8)	69 (98.6)	69 (94.5)	79 (98.8)	59 (93.7)
	중·장기 방문 요양	있다	1 (1.1)	0 (0.0)	0 (0.0)	1 (2.1)	0 (0.0)	1 (1.2)	1 (1.4)	0 (0.0)	1 (1.3)	0 (0.0)
		없다	91 (98.9)	51 (100.0)	96 (100.0)	46 (97.9)	62 (100.0)	80 (98.8)	69 (98.6)	73 (100.0)	79 (98.8)	63 (100.0)
이용의향	있다	79 (85.9)	43 (84.3)	80 (83.3)	42 (89.4)	51 (82.3)	71 (87.7)	61 (87.1)	61 (83.6)	66 (82.5)	56 (88.9)	
	없다	13 (14.1)	8 (15.7)	16 (16.7)	5 (10.6)	11 (17.7)	10 (12.3)	9 (12.9)	12 (16.4)	14 (17.5)	7 (11.1)	
이용일 적정 여부	적절	73 (79.3)	38 (74.5)	80 (83.3)	31 (66.0)	49 (79.0)	62 (76.5)	53 (75.7)	58 (79.5)	62 (77.5)	49 (77.8)	
	비적절	19 (20.7)	13 (25.5)	16 (16.7)	16 (34.0)	13 (21.0)	19 (23.5)	17 (24.3)	15 (20.5)	18 (22.5)	14 (22.2)	
자부담 비율 적정성	긍정	68 (73.9)	45 (88.2)	73 (76.0)	40 (85.1)	44 (71.0)	69 (85.2)	52 (74.3)	61 (83.6)	60 (75.0)	53 (84.1)	
	부정	24 (26.1)	6 (11.8)	23 (24.0)	7 (14.9)	18 (29.0)	12 (14.8)	18 (25.7)	12 (16.4)	20 (25.0)	10 (15.9)	
정책 필요성	긍정	68 (73.9)	45 (88.2)	73 (76.0)	40 (85.1)	44 (71.0)	69 (85.2)	52 (74.3)	61 (83.6)	60 (75.0)	53 (84.1)	
	부정	24 (26.1)	6 (11.8)	23 (24.0)	7 (14.9)	18 (29.0)	12 (14.8)	18 (25.7)	12 (16.4)	20 (25.0)	10 (15.9)	

3. 치매환자 특성

본 조사 치매환자 특성은 <표 2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20명(83.9%)으로 남자 23명(16.1%)보다 5.2배 많았다.

나이는 80대 74명(51.7%), 90대 37명(25.9%), 70대 26명(18.2%), 60대 2명(1.4%), 100세 이상 4명(2.8%)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횡성군 40명(28.0%), 홍천군 39명(27.3%), 원주시 23명(16.1%), 춘천시 22명(15.4%), 철원군 14명(9.7%), 타 시·도 3명(2.1%), 화천군 2명(1.4%) 순이었다. 타 시·도 거주자는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였다.

가구 형태는 독거 44명(30.8%), 배우자 없이 가족만 38명(26.5%), 배우자 및 가족 36명(25.2%), 노인부부 20명(14.0%), 치매 노인부부 4명(2.8%), 기타 1명(0.7%) 순이었다.

돌봄기간은 1년~3년 미만 50명(35%), 3년~6년 미만 46명(32.2%), 1년 미만 29명(20.3%), 9년 이상 10명(7.0%), 6년~9년 미만 8명(5.5%) 순이었다.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는 자주 필요함 67명(46.9%), 언제나 항상 필요함 29명(20.3%), 간혹 필요함 24명(16.8%), 거의 언제나 필요함 23명(16.0%) 순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4등급 51명(35.7%), 5등급 49명(34.3%), 3등급 34명(23.8%), 2등급 5명(3.4%), 인지지원등급 3명(2.1%), 1등급 1명(0.7%)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은 15% 95명(66.4%), 6% 23명 (16.1%), 9% 13명(9.1%), 0% 12명(8.4%) 순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미참여 기관 이용자 99명(69.2%), 참여기관 이용자 44명(30.8%) 순이었다.

[표 21] 치매환자 일반적 특성

구분		n(%)	구분		n(%)
성별	남자	23(16.1)	돌봄 기간	1년 미만	29(20.3)
	여자	120(83.9)		1년~3년 미만	50(35.0)
나이	60대	2(1.4)		3년~6년 미만	46(32.2)
	70대	26(18.2)		6년~9년 미만	8(5.5)
	80대	74(51.7)		9년 이상	10(7.0)
	90대	37(25.9)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16.8)
	100세 이상	4(2.8)		자주 필요	67(46.9)
거주 지역	춘천시	22(15.4)		거의 언제나 필요	23(16.0)
	원주시	23(16.1)		언제나 항상 필요	29(20.3)
	홍천군	39(27.3)	장기요양 등급	1등급	1(0.7)
	횡성군	40(28.0)		2등급	5(3.4)
	철원군	14(9.7)		3등급	34(23.8)
	화천군	2(1.4)		4등급	51(35.7)
	타 시도	3(2.1)		5등급	49(34.3)
가구 형태	독거	44(30.8)		인지지원등급	3(2.1)
	노인부부	20(14.0)		장기요양 급여 자부담 비율	15%
	치매 노인부부	4(2.8)	9%		13(9.1)
	배우자 및 가족	36(25.2)	6%		23(16.1)
	배우자 없이 가족만	38(26.5)	0%		12(8.4)
	기타	1(0.7)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30.8)
		미참여기관 이용		99(69.2)	

4. 치매환자 특성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1)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인지 여부

치매가족휴가제 인지 여부는 비인지 88명(61.5%), 인지 55명(38.5%)과 종일방문요양 비인지 101명(70.6%), 인지 42명(29.4%)으로 비인지가 더 많았다(표 22).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인지 여부에 비인지로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4명(60.9%), 여자 74명(61.7%)이었고 나이는 60대 88명(61.5%), 70대 16명(61.5%), 80대 50명(67.6%), 90대 19명(51.4%), 100세 이상 3명(75.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7명(31.8%), 원주시 21명(91.3%), 홍천군 26명(66.7%), 횡성군 26명(65.0%), 철원군 7명(50.0%), 타 시도 1명(33.3%)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32명(72.7%), 노인부부 13명(65.0%), 치매 노인부부 2명(50.0%), 배우자 및 가족 20명(55.6%), 배우자 없이 가족만 20명(52.6%),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19명(65.5%), 1~3년 미만 31명(62.0%), 3~6년 미만 29명(63.0%), 6~9년 미만 5명(62.5%), 9년 이상 4명(4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15명(62.5%), 자주 필요 43명(64.2%), 거의 언제나 필요 13명(56.5%), 언제나 항상 필요 17명(58.6%)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 2명(40.0%), 3등급 17명(50.0%), 4등급 30명(58.8%), 5등급 37명(75.5%), 인지지원등급 2명(66.7%)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64명(67.4%), 9% 4명(30.8%), 6% 11명(47.8%), 0% 9명(75.0%)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21명(47.7%), 미참여기관 이용 67명(67.7%)이었다.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인지 여부에 비인지로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7명(73.9%), 여자 84명(70.0%)이었고 나이는 60대 15명(10.5%), 70대 18명(69.2%), 80대 57명(77.0%), 90대 22명(59.5%), 100세 이상 3명(75.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13명(59.1%), 원주시 21명(91.3%), 홍천군 30명(76.9%), 횡성군 27명(67.5%), 철원군 8명(57.1%), 타 시도 2명(66.7%)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37명(84.1%), 노인부부 16명(80.0%), 치매 노인부부 2명(50.0%), 배우자 및 가족 22명(61.1%), 배우자 없이 가족만 23명(60.5%),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25명(86.2%), 1~3년 미만 33명(66.0%), 3~6년 미만 32명(69.6%), 6~9년 미만 5명(62.5%), 9년 이상 6명(6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19명(79.2%), 자주 필요 48명(71.6%), 거의 언제나 필요 15명(65.2%), 언제나 항상 필요 19명(65.5%)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 3명(60.0%), 3등급 19명(55.9%), 4등급 33명(64.7%), 5등급 43명(87.8%), 인지지원등급 3명(100.0%)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71명(74.7%), 9% 5명(38.5%), 6% 14명(60.9%), 0% 11명(91.7%)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25명(56.8%), 미참여기관 이용 76명(76.8%)이었다.

[표 22] 치매가족휴가제 인지 여부

(N=143)

구분	N	단기보호 인지 여부		종일방문요양 인지 여부		
		인지 n(%)	비인지 n(%)	인지 n(%)	비인지 n(%)	
전체	143	55(38.5)	88(61.5)	42(29.4)	101(70.6)	
성별	남자	23	9(39.1)	14(60.9)	6(26.1)	17(73.9)
	여자	120	46(38.3)	74(61.7)	36(30.0)	84(70.0)
나이	60대	143	55(38.5)	88(61.5)	27(18.9)	15(10.5)
	70대	26	10(38.5)	16(61.5)	8(30.8)	18(69.2)
	80대	74	24(32.4)	50(67.6)	17(23.0)	57(77.0)
	90대	37	18(48.6)	19(51.4)	15(40.5)	22(59.5)
	100세 이상	4	1(25.0)	3(75.0)	1(25.0)	3(75.0)
거주지역	춘천시	22	15(68.2)	7(31.8)	9(40.9)	13(59.1)
	원주시	23	2(8.7)	21(91.3)	2(8.7)	21(91.3)
	홍천군	39	13(33.3)	26(66.7)	9(23.1)	30(76.9)
	횡성군	40	14(35.0)	26(65.0)	13(32.5)	27(67.5)
	철원군	14	7(50.0)	7(50.0)	6(42.9)	8(57.1)
	화천군	2	2(100.0)	0(0.0)	2(100.0)	0(0.0)
	타 시도	3	2(66.7)	1(33.3)	1(33.3)	2(66.7)
가구 형태	독거	44	12(27.3)	32(72.7)	7(15.9)	37(84.1)
	노인부부	20	7(35.0)	13(65.0)	4(20.0)	16(80.0)
	치매 노인부부	4	2(50.0)	2(50.0)	2(50.0)	2(50.0)
	배우자 및 가족	36	16(44.4)	20(55.6)	14(38.9)	22(61.1)
	배우자 없이 가족만	38	18(47.4)	20(52.6)	15(39.5)	23(60.5)
기타	1	0(0.0)	1(100.0)	0(0.0)	1(100.0)	
돌봄 기간	1년 미만	29	10(34.5)	19(65.5)	4(13.8)	25(86.2)
	1~3년 미만	50	19(38.0)	31(62.0)	17(34.0)	33(66.0)
	3~6년 미만	46	17(37.0)	29(63.0)	14(30.4)	32(69.6)
	6~9년 미만	8	3(37.5)	5(62.5)	3(37.5)	5(62.5)
	9년 이상	10	6(60.0)	4(40.0)	4(40.0)	6(60.0)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	9(37.5)	15(62.5)	5(20.8)	19(79.2)
	자주 필요	67	24(35.8)	43(64.2)	19(28.4)	48(71.6)
	거의 언제나 필요	23	10(43.5)	13(56.5)	8(34.8)	15(65.2)
	언제나 항상 필요	29	12(41.4)	17(58.6)	10(34.5)	19(65.5)
장기요양등급	1등급	1	1(100.0)	0(0.0)	1(100.0)	0(0.0)
	2등급	5	3(60.0)	2(40.0)	2(40.0)	3(60.0)
	3등급	34	17(50.0)	17(50.0)	15(44.1)	19(55.9)
	4등급	51	21(41.2)	30(58.8)	18(35.3)	33(64.7)
	5등급	49	12(24.5)	37(75.5)	6(12.2)	43(87.8)
	인지지원등급	3	1(33.3)	2(66.7)	0(0.0)	3(100.0)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15%	95	31(32.6)	64(67.4)	24(25.3)	71(74.7)
	9%	13	9(69.2)	4(30.8)	8(61.5)	5(38.5)
	6%	23	12(52.2)	11(47.8)	9(39.1)	14(60.9)
	0%	12	3(25.0)	9(75.0)	1(8.3)	11(91.7)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23(52.3)	21(47.7)	19(43.2)	25(56.8)
	미참여기관 이용	99	32(32.3)	67(67.7)	23(23.2)	76(76.8)

2)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보 습득 경험

치매가족휴가제 정보 습득 경험은 있다 105명(73.4%), 없다 38명(26.6%) 순이었다(표 23).

치매가족휴가제 정보 습득 경험 있다고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5명(65.2%), 여자 90명(75.0%)이었고 나이는 60대 2명(100.0%), 70대 19명(73.1%), 80대 54명(73.0%), 90대 29명(78.4%), 100세 이상 1명(25.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2명(100.0%), 원주시 11명(47.8%), 홍천군 23명(59.0%), 횡성군 32명(80.0%), 철원군 13명(92.9%), 화천군 2명(100.0%), 타 시도 2명(66.7%)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29명(65.9%), 노인부부 16명(80.0%), 치매 노인부부 3명(75.0%), 배우자 및 가족 27명(75.0%), 배우자 없이 가족만 30명(78.9%)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21명(72.4%), 1~3년 미만 39명(78.0%), 3~6년 미만 31명(67.4%), 6~9년 미만 5명(62.5%), 9년 이상 9명(9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19명(79.2%), 자주 필요 50명(74.6%), 거의 언제나 필요 15명(65.2%), 언제나 항상 필요 21명(72.4%)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1명(100.0%), 2등급 5명(100.0%), 3등급 24명(70.6%), 4등급 38명(74.5%), 5등급 34명(69.4%), 인지지원등급 3명(100.0%)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65명(68.4%), 9% 13명(100.0%), 6% 20명(87.0%), 0% 7명(58.3%)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8명(86.4%), 미참여기관 이용 67명(67.7%)이었다.

[표 23] 치매가족휴가제 정보 습득 경험

(N=143)

구분		N	있다 n(%)	없다 n(%)
전체		143	105(73.4)	38(26.6)
성별	남자	23	15(65.2)	8(34.8)
	여자	120	90(75.0)	30(25.0)
나이	60대	2	2(100.0)	0(0.0)
	70대	26	19(73.1)	7(26.9)
	80대	74	54(73.0)	20(27.0)
	90대	37	29(78.4)	8(21.6)
	100세 이상	4	1(25.0)	3(75.0)
거주지역	춘천시	22	22(100.0)	0(0.0)
	원주시	23	11(47.8)	12(52.2)
	홍천군	39	23(59.0)	16(41.0)
	횡성군	40	32(80.0)	8(20.0)
	철원군	14	13(92.9)	1(7.1)
	화천군	2	2(100.0)	0(0.0)
	타 시도	3	2(66.7)	1(33.3)
가구 형태	독거	44	29(65.9)	15(34.1)
	노인부부	20	16(80.0)	4(20.0)
	치매 노인부부	4	3(75.0)	1(25.0)
	배우자 및 가족	36	27(75.0)	9(25.0)
	배우자 없이 가족만	38	30(78.9)	8(21.1)
	기타	1	0(0.0)	1(100.0)
돌봄 기간	1년 미만	29	21(72.4)	8(27.6)
	1~3년 미만	50	39(78.0)	11(22.0)
	3~6년 미만	46	31(67.4)	15(32.6)
	6~9년 미만	8	5(62.5)	3(37.5)
	9년 이상	10	9(90.0)	1(10.0)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	19(79.2)	5(20.8)
	자주 필요	67	50(74.6)	17(25.4)
	거의 언제나 필요	23	15(65.2)	8(34.8)
	언제나 항상 필요	29	21(72.4)	8(27.6)
장기요양등급	1등급	1	1(100.0)	0(0.0)
	2등급	5	5(100.0)	0(0.0)
	3등급	34	24(70.6)	10(29.4)
	4등급	51	38(74.5)	13(25.5)
	5등급	49	34(69.4)	15(30.6)
	인지지원등급	3	3(100.0)	0(0.0)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15%	95	65(68.4)	30(31.6)
	9%	13	13(100.0)	0(0.0)
	6%	23	20(87.0)	3(13.0)
	0%	12	7(58.3)	5(41.7)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38(86.4)	6(13.6)
	미참여기관 이용	99	67(67.7)	32(32.3)

3)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경험 유무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이용경험은 없다 138명(96.5%), 있다 5명(3.5%)과 종일방문요양 이용경험은 없다 141명(99.3%), 있다 1명(0.7%) 순이었다(표 24).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이용경험 없자로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1명(91.3%), 여자 117명(97.5%)이었고 나이는 60대 2명(100.0%), 70대 26명(100.0%), 80대 72명(97.3%), 90대 35명(94.6%), 100세 이상 3명(75.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1명(95.5%), 원주시 23명(100.0%), 흥천군 39명(100.0%), 횡성군 38명(95.0%), 철원군 13명(92.9%), 화천군 1명(50.0%), 타 시도 3명(100.0%)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44명(100.0%), 노인부부 19명(95.0%), 치매 노인부부 4명(100.0%), 배우자 및 가족 34명(94.4%), 배우자 없이 가족만 36명(94.7%),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28명(96.6%), 1~3년 미만 49명(98.0%), 3~6년 미만 43명(93.5%), 6~9년 미만 8명(100.0%), 9년 이상 10명(100.0%) 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24명(100.0%), 자주 필요 64명(95.5%), 거의 언제나 필요 22명(95.7%), 언제나 항상 필요 28명(96.6%)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1명(100.0%), 2등급 4명(80.0%), 3등급 33명(97.1%), 4등급 49명(96.1%), 5등급 48명(98.0%), 인지지원등급 3명(100.0%)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92명(96.8%), 9% 13명(100.0%), 6% 22명(95.7%), 0% 11명(91.7%)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42명(95.5%), 미참여기관 이용 96명(97.0%)이었다.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이용경험 없다고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2명(95.7%), 여자 120명(100.0%)이었고 나이는 60대 2명(100.0%), 70대 26명(100.0%), 80대 73명(98.6%), 90대 37명(100.0%), 100세 이상 4명(100.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1명(95.5%), 원주시 23명(100.0%), 홍천군 39명(100.0%), 횡성군 40명(100.0%), 철원군 14명(100.0%), 화천군 2명(100.0%), 타 시도 3명(100.0%)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44명(100.0%), 노인부부 19명(95.0%), 치매 노인부부 4명(100.0%), 배우자 및 가족 36명(100.0%), 배우자 없이 가족만 38명(100.0%),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28명(96.6%), 1~3년 미만 50명(100.0%), 3~6년 미만 46명(100.0%), 6~9년 미만 8명(100.0%), 9년 이상 10명(10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24명(100.0%), 자주 필요 67명(100.0%), 거의 언제나 필요 23명(100.0%), 언제나 항상 필요 28명(96.6%)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1명(100.0%), 2등급 4명(80.0%), 3등급 34명(100.0%), 4등급 51명(100.0%), 5등급 49명(100.0%), 인지지원등급 3명(100.0%)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94명(98.9%), 9% 13명(100.0%), 6% 23명(100.0%), 0% 12명(100.0%)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44명(100.0%), 미참여기관 이용 98명(99.0%)이었다.

[표 24]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경험 유무

구분		N	단기보호 이용경험 유무		종일방문요양 이용경험 유무	
			있다 n(%)	없다 n(%)	있다 n(%)	없다 n(%)
전체		143	5(3.5)	138(96.5)	1(0.7)	142(99.3)
성별	남자	23	2(8.7)	21(91.3)	1(4.3)	22(95.7)
	여자	120	3(2.5)	117(97.5)	0(0.0)	120(100.0)
나이	60대	2	0(0.0)	2(100.0)	0(0.0)	2(100.0)
	70대	26	0(0.0)	26(100.0)	0(0.0)	26(100.0)
	80대	74	2(2.7)	72(97.3)	1(1.4)	73(98.6)
	90대	37	2(5.4)	35(94.6)	0(0.0)	37(100.0)
	100세 이상	4	1(25.0)	3(75.0)	0(0.0)	4(100.0)
거주지역	춘천시	22	1(4.5)	21(95.5)	1(4.5)	21(95.5)
	원주시	23	0(0.0)	23(100.0)	0(0.0)	23(100.0)
	홍천군	39	0(0.0)	39(100.0)	0(0.0)	39(100.0)
	횡성군	40	2(5.0)	38(95.0)	0(0.0)	40(100.0)
	철원군	14	1(7.1)	13(92.9)	0(0.0)	14(100.0)
	화천군	2	1(50.0)	1(50.0)	0(0.0)	2(100.0)
	타 시도	3	0(0.0)	3(100.0)	0(0.0)	3(100.0)
가구 형태	독거	44	0(0.0)	44(100.0)	0(0.0)	44(100.0)
	노인부부	20	1(5.0)	19(95.0)	1(5.0)	19(95.0)
	치매 노인부부	4	0(0.0)	4(100.0)	0(0.0)	4(100.0)
	배우자 및 가족	36	2(5.6)	34(94.4)	0(0.0)	36(100.0)
	배우자 없이 가족만	38	2(5.3)	36(94.7)	0(0.0)	38(100.0)
	기타	1	0(0.0)	1(100.0)	0(0.0)	1(100.0)
돌봄 기간	1년 미만	29	1(3.4)	28(96.6)	1(3.4)	28(96.6)
	1~3년 미만	50	1(2.0)	49(98.0)	0(0.0)	50(100.0)
	3~6년 미만	46	3(6.5)	43(93.5)	0(0.0)	46(100.0)
	6~9년 미만	8	0(0.0)	8(100.0)	0(0.0)	8(100.0)
	9년 이상	10	0(0.0)	10(100.0)	0(0.0)	10(100.0)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	0(0.0)	24(100.0)	0(0.0)	24(100.0)
	자주 필요	67	3(4.5)	64(95.5)	0(0.0)	67(100.0)
	거의 언제나 필요	23	1(4.3)	22(95.7)	0(0.0)	23(100.0)
	언제나 항상 필요	29	1(3.4)	28(96.6)	1(3.4)	28(96.6)
장기요양등급	1등급	1	0(0.0)	1(100.0)	0(0.0)	1(100.0)
	2등급	5	1(20.0)	4(80.0)	1(20.0)	4(80.0)
	3등급	34	1(2.9)	33(97.1)	0(0.0)	34(100.0)
	4등급	51	2(3.9)	49(96.1)	0(0.0)	51(100.0)
	5등급	49	1(2.0)	48(98.0)	0(0.0)	49(100.0)
	인지지원등급	3	0(0.0)	3(100.0)	0(0.0)	3(100.0)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15%	95	3(3.2)	92(96.8)	1(1.1)	94(98.9)
	9%	13	0(0.0)	13(100.0)	0(0.0)	13(100.0)
	6%	23	1(4.3)	22(95.7)	0(0.0)	23(100.0)
	0%	12	1(8.3)	11(91.7)	0(0.0)	12(100.0)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2(4.5)	42(95.5)	0(0.0)	44(100.0)
	미참여기관 이용	99	3(3.0)	96(97.0)	1(1.0)	98(99.0)

4)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의향 유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은 있다 122명(85.3%), 없다 21명(14.7%) 순이었다(표 25).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있다고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1명(91.3%), 여자 101명(84.2%)이었고 나이는 60대 1명(50.0%), 70대 21명(80.8%), 80대 65명(87.8%), 90대 31명(83.8%), 100세 이상 4명(100.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16명(72.7%), 원주시 21명(91.3%), 홍천군 33명(84.6%), 횡성군 34명(85.0%), 철원군 14명(100.0%), 화천군 1명(50.0%), 타 시도 3명(100.0%)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35명(79.5%), 노인부부 16명(80.0%), 치매 노인 부부 4명(100.0%), 배우자 및 가족 32명(88.9%), 배우자 없이 가족만 34명(89.5%),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27명(93.1%), 1~3년 미만 41명(82.0%), 3~6년 미만 39명(84.8%), 6~9년 미만 6명(75.0%), 9년 이상 9명(9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20명(83.3%), 자주 필요 60명(89.6%), 거의 언제나 필요 21명(91.3%), 언제나 항상 필요 21명(72.4%)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 3명(60.0%), 3등급 28명(82.4%), 4등급 43명(84.3%), 5등급 45명(91.8%), 인지지원등급 3명(100.0%)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87명(91.6%), 9% 10명(76.9%), 6% 15명(65.2%), 0% 10명(83.3%)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7명(84.1%), 미참여기관 이용 85명(85.9%)이었다.

[표 25]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유무

		(N=143)		
구분		N	있다 n(%)	없다 n(%)
전체		143	122(85.3)	21(14.7)
성별	남자	23	21(91.3)	2(8.7)
	여자	120	101(84.2)	19(15.8)
나이	60대	2	1(50.0)	1(50.0)
	70대	26	21(80.8)	5(19.2)
	80대	74	65(87.8)	9(12.2)
	90대	37	31(83.8)	6(16.2)
	100세 이상	4	4(100.0)	0(0.0)
거주지역	춘천시	22	16(72.7)	6(27.3)
	원주시	23	21(91.3)	2(8.7)
	홍천군	39	33(84.6)	6(15.4)
	횡성군	40	34(85.0)	6(15.0)
	철원군	14	14(100.0)	0(0.0)
	화천군	2	1(50.0)	1(50.0)
	타 시도	3	3(100.0)	0(0.0)
가구 형태	독거	44	35(79.5)	9(20.5)
	노인부부	20	16(80.0)	4(20.0)
	치매 노인부부	4	4(100.0)	0(0.0)
	배우자 및 가족	36	32(88.9)	4(11.1)
	배우자 없이 가족만	38	34(89.5)	4(10.5)
	기타	1	1(100.0)	0(0.0)
돌봄 기간	1년 미만	29	27(93.1)	2(6.9)
	1~3년 미만	50	41(82.0)	9(18.0)
	3~6년 미만	46	39(84.8)	7(15.2)
	6~9년 미만	8	6(75.0)	2(25.0)
	9년 이상	10	9(90.0)	1(10.0)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	20(83.3)	4(16.7)
	자주 필요	67	60(89.6)	7(10.4)
	거의 언제나 필요	23	21(91.3)	2(8.7)
	언제나 항상 필요	29	21(72.4)	8(27.6)
장기요양등급	1등급	1	0(0.0)	1(100.0)
	2등급	5	3(60.0)	2(40.0)
	3등급	34	28(82.4)	6(17.6)
	4등급	51	43(84.3)	8(15.7)
	5등급	49	45(91.8)	4(8.2)
	인지지원등급	3	3(100.0)	0(0.0)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15%	95	87(91.6)	8(8.4)
	9%	13	10(76.9)	3(23.1)
	6%	23	15(65.2)	8(34.8)
	0%	12	10(83.3)	2(16.7)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37(84.1)	7(15.9)
	미참여기관 이용	99	85(85.9)	14(14.1)

5)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은 기관의 시설 환경 54명(37.8%), 자부담금액 44명(30.8%), 기관평가 33명(23.1%), 기관과의 거리 9명(6.3%), 광고 홍보 내용 3명(2.1%), 기타 2명(1.4%), 지인의 소개 및 추천 1명(0.7%) 순이고 기타는 환자 의견,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으로 응답하였다(표 26).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기관의 시설 환경으로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8명(34.8%), 여자 46명(38.3%)이었고 나이는 60대 2명(100.0%), 70대 10명(38.5%), 80대 27명(36.5%), 90대 15명(40.5%)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9명(40.9%), 원주시 4명(17.4%), 홍천군 17명(43.6%), 횡성군 18명(45.0%), 철원군 5명(35.7%), 타 시도 1명(33.3%)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16명(36.4%), 노인부부 9명(45.0%), 배우자 및 가족 15명(41.7%), 배우자 없이 가족만 13명(34.2%),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11명(37.9%), 1~3년 미만 18명(36.0%), 3~6년 미만 16명(34.8%), 6~9년 미만 2명(25.0%), 9년 이상 7명(7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8명(33.3%), 자주 필요 23명(34.3%), 거의 언제나 필요 11명(47.8%), 언제나 항상 필요 12명(41.4%)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 2명(40.0%), 3등급 16명(47.1%), 4등급 19명(37.3%), 5등급 16명(32.7%), 인지지원등급 1명(33.3%)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34명(35.8%), 9% 6명(46.2%), 6% 11명(47.8%), 0% 3명(25.0%)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21명(47.7%), 미참여기관 이용 33명(33.3%)이었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자부담금액으로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9명(39.1%), 여자 35명(29.2%)이었고 나이는 70대 6명(23.1%), 80대 23명(31.1%), 90대 13명(35.1%), 100세 이상 2명(50.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8명(36.4%), 원주시 10명(43.5%), 홍천군 14명(35.9%), 횡성군 8명(20.0%), 철원군 2명(14.3%), 화천군 1명(50.0%), 타 시도 1명(33.3%)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15명(34.1%), 노인부부 3명(15.0%), 치매 노인부부 3명(75.0%), 배우자 및 가족 12명(33.3%), 배우자 없이 가족만 11명(28.9%)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6명(20.7%), 1~3년 미만 15명(30.0%), 3~6년 미만 16명(34.8%), 6~9년 미만 5명(62.5%), 9년 이상 2명(2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7명(29.2%), 자주 필요 24명(35.8%), 거의 언제나 필요 4명(17.4%), 언제나 항상 필요 9명(31.0%)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 1명(20.0%), 3등급 10명(29.4%), 4등급 17명(33.3%), 5등급 16명(32.7%)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28명(29.5%), 9% 4명(30.8%), 6% 9명(39.1%), 0% 3명(25.0%)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10명(22.7%), 미참여기관 이용 34명(34.3%)이었다.

[표 26]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

		(N=143)							
구분		N	자부담 금액 n(%)	기관 평가 n(%)	광고홍보 내용 n(%)	기관과의 거리 n(%)	기관의 시설 환경 n(%)	지인의 소개·추천 n(%)	기타 n(%)
	전체	143	44(30.8)	33(23.1)	3(2.1)	9(6.3)	54(37.8)	1(0.7)	2(1.4)
성별	남자	23	9(39.1)	6(26.1)	0(0.0)	0(0.0)	8(34.8)	0(0.0)	0(0.0)
	여자	120	35(29.2)	24(20.0)	3(2.5)	9(7.5)	46(38.3)	1(0.8)	2(1.7)
나이	60대	2	0(0.0)	0(0.0)	0(0.0)	0(0.0)	2(100.0)	0(0.0)	0(0.0)
	70대	26	6(23.1)	6(23.1)	2(7.7)	2(7.7)	10(38.5)	0(0.0)	0(0.0)
	80대	74	23(31.1)	16(21.6)	0(0.0)	5(6.8)	27(36.5)	1(1.4)	2(2.7)
	90대	37	13(35.1)	6(16.2)	1(2.7)	2(5.4)	15(40.5)	0(0.0)	0(0.0)
	100세 이상	4	2(50.0)	2(50.0)	0(0.0)	0(0.0)	0(0.0)	0(0.0)	0(0.0)
거주지역	춘천시	22	8(36.4)	4(18.2)	0(0.0)	1(4.5)	9(40.9)	0(0.0)	0(0.0)
	원주시	23	10(43.5)	7(30.4)	0(0.0)	2(8.7)	4(17.4)	0(0.0)	0(0.0)
	홍천군	39	14(35.9)	6(15.4)	1(2.6)	0(0.0)	17(43.6)	0(0.0)	1(2.6)
	횡성군	40	8(20.0)	8(20.0)	1(2.5)	4(10.0)	18(45.0)	1(2.5)	0(0.0)
	철원군	14	2(14.3)	4(28.6)	1(7.1)	1(7.1)	5(35.7)	0(0.0)	1(7.1)
	화천군	2	1(50.0)	1(50.0)	0(0.0)	0(0.0)	0(0.0)	0(0.0)	0(0.0)
	타 시도	3	1(33.3)	0(0.0)	0(0.0)	1(33.3)	1(33.3)	0(0.0)	0(0.0)
가구 형태	독거	44	15(34.1)	8(18.2)	1(2.3)	3(6.8)	16(36.4)	0(0.0)	1(2.3)
	노인부부	20	3(15.0)	5(25.0)	1(5.0)	2(10.0)	9(45.0)	0(0.0)	0(0.0)
	치매 노인부부	4	3(75.0)	1(25.0)	0(0.0)	0(0.0)	0(0.0)	0(0.0)	0(0.0)
	배우자 및 가족	36	12(33.3)	6(16.7)	0(0.0)	2(5.6)	15(41.7)	1(2.8)	0(0.0)
	배우자없이가족만	38	11(28.9)	10(26.3)	1(2.6)	2(5.3)	13(34.2)	0(0.0)	1(2.6)
기타	1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돌봄 기간	1년 미만	29	6(20.7)	11(37.9)	0(0.0)	1(3.4)	11(37.9)	0(0.0)	0(0.0)
	1~3년 미만	50	15(30.0)	10(20.0)	0(0.0)	5(10.0)	18(36.0)	0(0.0)	2(4.0)
	3~6년 미만	46	16(34.8)	7(15.2)	3(6.5)	3(6.5)	16(34.8)	1(2.2)	0(0.0)
	6~9년 미만	8	5(62.5)	1(12.5)	0(0.0)	0(0.0)	2(25.0)	0(0.0)	0(0.0)
	9년 이상	10	2(20.0)	1(10.0)	0(0.0)	0(0.0)	7(70.0)	0(0.0)	0(0.0)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	7(29.2)	8(33.3)	0(0.0)	0(0.0)	8(33.3)	1(4.2)	0(0.0)
	자주 필요	67	24(35.8)	12(17.9)	1(1.5)	5(7.5)	23(34.3)	0(0.0)	2(3.0)
	거의 언제나 필요	23	4(17.4)	4(17.4)	2(8.7)	2(8.7)	11(47.8)	0(0.0)	0(0.0)
	언제나 항상 필요	29	9(31.0)	6(20.7)	0(0.0)	2(6.9)	12(41.4)	0(0.0)	0(0.0)
장기요양 등급	1등급	1	0(0.0)	0(0.0)	0(0.0)	1(100.0)	0(0.0)	0(0.0)	0(0.0)
	2등급	5	1(20.0)	0(0.0)	1(20.0)	1(20.0)	2(40.0)	0(0.0)	0(0.0)
	3등급	34	10(29.4)	4(11.8)	1(2.9)	3(8.8)	16(47.1)	0(0.0)	0(0.0)
	4등급	51	17(33.3)	11(21.6)	0(0.0)	3(5.9)	19(37.3)	0(0.0)	1(2.0)
	5등급	49	16(32.7)	13(26.5)	1(2.0)	1(2.0)	16(32.7)	1(2.0)	1(2.0)
인지지원등급	3	0(0.0)	2(66.7)	0(0.0)	0(0.0)	1(33.3)	0(0.0)	0(0.0)	
장기요양 급여 자부담 비율	15%	95	28(29.5)	18(18.9)	3(3.2)	9(9.5)	34(35.8)	1(1.1)	2(2.1)
	9%	13	4(30.8)	3(23.1)	0(0.0)	0(0.0)	6(46.2)	0(0.0)	0(0.0)
시범사업 참여 구분	6%	23	9(39.1)	3(13.0)	0(0.0)	0(0.0)	11(47.8)	0(0.0)	0(0.0)
	0%	12	3(25.0)	6(50.0)	0(0.0)	0(0.0)	3(25.0)	0(0.0)	0(0.0)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10(22.7)	9(20.5)	1(2.3)	2(4.5)	21(47.7)	0(0.0)	1(2.3)
	미참여기관 이용	99	34(34.3)	21(21.2)	2(2.0)	7(7.1)	33(33.3)	1(1.0)	1(1.0)

6)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일 적절 여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 여부는 적절하다 111명(77.6%)이 적절하지 않다 32명(22.4%)보다 많았다(표 27).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하다고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명(87.0%), 여자 91명(75.8%)이었고 나이는 60대 1명(50.0%), 70대 19명(73.1%), 80대 58명(78.4%), 90대 29명(78.4%), 100세 이상 4명(100.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15명(68.2%), 원주시 18명(78.3%), 홍천군 31명(79.5%), 횡성군 30명(75.0%), 철원군 13명(92.9%), 화천군 2명(100.0%), 타 시도 2명(66.7%)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31명(70.5%), 노인부부 16명(80.0%), 치매 노인 부부 3명(75.0%), 배우자 및 가족 30명(83.3%), 배우자 없이 가족만 30명(78.9%),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22명(75.9%), 1~3년 미만 36명(72.0%), 3~6년 미만 36명(78.3%), 6~9년 미만 8명(100.0%), 9년 이상 9명(90.0%) 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18명(75.0%), 자주 필요 48명(71.6%), 거의 언제나 필요 19명(82.6%), 언제나 항상 필요 26명(89.7%)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1명(100.0%), 2등급 4명(80.0%), 3등급 29명(85.3%), 4등급 38명(74.5%), 5등급 37명(75.5%), 인지지원등급 2명(66.7%)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69명(72.6%), 9% 11명(84.6%), 6% 19명(82.6%), 0% 12명(100.0%)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9명(88.6%), 미참여기관 이용 72명(72.7%)이었다.

[표 27]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 여부

		(N=143)		
	구분	N	적절하다 n(%)	적절하지 않다 n(%)
	전체	143	111(77.6)	32(22.4)
성별	남자	23	20(87.0)	3(13.0)
	여자	120	91(75.8)	29(24.2)
나이	60대	2	1(50.0)	1(50.0)
	70대	26	19(73.1)	7(26.9)
	80대	74	58(78.4)	16(21.6)
	90대	37	29(78.4)	8(21.6)
	100세 이상	4	4(100.0)	0(0.0)
거주지역	춘천시	22	15(68.2)	7(31.8)
	원주시	23	18(78.3)	5(21.7)
	홍천군	39	31(79.5)	8(20.5)
	횡성군	40	30(75.0)	10(25.0)
	철원군	14	13(92.9)	1(7.1)
	화천군	2	2(100.0)	0(0.0)
	타 시도	3	2(66.7)	1(33.3)
가구 형태	독거	44	31(70.5)	13(29.5)
	노인부부	20	16(80.0)	4(20.0)
	치매 노인부부	4	3(75.0)	1(25.0)
	배우자 및 가족	36	30(83.3)	6(16.7)
	배우자 없이 가족만	38	30(78.9)	8(21.1)
	기타	1	1(100.0)	0(0.0)
돌봄 기간	1년 미만	29	22(75.9)	7(24.1)
	1~3년 미만	50	36(72.0)	14(28.0)
	3~6년 미만	46	36(78.3)	10(21.7)
	6~9년 미만	8	8(100.0)	0(0.0)
	9년 이상	10	9(90.0)	1(10.0)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	18(75.0)	6(25.0)
	자주 필요	67	48(71.6)	19(28.4)
	거의 언제나 필요	23	19(82.6)	4(17.4)
	언제나 항상 필요	29	26(89.7)	3(10.3)
장기요양등급	1등급	1	1(100.0)	0(0.0)
	2등급	5	4(80.0)	1(20.0)
	3등급	34	29(85.3)	5(14.7)
	4등급	51	38(74.5)	13(25.5)
	5등급	49	37(75.5)	12(24.5)
	인지지원등급	3	2(66.7)	1(33.3)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15%	95	69(72.6)	26(27.4)
	9%	13	11(84.6)	2(15.4)
	6%	23	19(82.6)	4(17.4)
	0%	12	12(100.0)	0(0.0)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39(88.6)	5(11.4)
	미참여기관 이용	99	72(72.7)	27(27.3)

7)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정성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은 긍정 응답 113명(79.0%)으로 부정 응답 30명(21.0%)보다 많았으며 100점 환산 평균 63.7점으로 나타났다(표 28).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긍정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4명(60.9%), 여자 99명(82.5%)이었고 나이는 60대 2명(100.0%), 70대 19명(73.1%), 80대 59명(79.7%), 90대 32명(86.5%), 100세 이상 1명(25.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1명(95.5%), 원주시 18명(78.3%), 홍천군 26명(66.7%), 횡성군 32명(80.0%), 철원군 12명(85.7%), 화천군 2명(100.0%), 타 시도 2명(66.7%)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35명(79.5%), 노인부부 15명(75.0%), 치매 노인 부부 3명(75.0%), 배우자 및 가족 27명(75.0%), 배우자 없이 가족만 32명(84.2%),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24명(82.8%), 1~3년 미만 41명(82.0%), 3~6년 미만 35명(76.1%), 6~9년 미만 7명(87.5%), 9년 이상 6명(6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20명(83.3%), 자주 필요 56명(83.6%), 거의 언제나 필요 17명(73.9%), 언제나 항상 필요 20명(69.0%)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1명(100.0%), 2등급 3명(60.0%), 3등급 26명(76.5%), 4등급 40명(78.4%), 5등급 41명(83.7%), 인지지원등급 2명(66.7%)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70명(73.7%), 9% 11명(84.6%), 6% 20명(87.0%), 0% 12명(100.0%)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32명(72.7%), 미참여기관 이용 81명(81.8%)이었다.

[표 28]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정성

(N=143)

구분	N	매우 적절하다 n(%)	적절하다 n(%)	적절하지 않다 n(%)	매우 적절하지 않다 n(%)	긍정 n(%)	부정 n(%)	100점 평균	
전체	143	18(12.6)	95(66.4)	29(20.3)	1(0.7)	113(79.0)	30(21.0)	63.7	
성별	남자	23	2(8.7)	12(52.2)	8(34.8)	1(4.3)	14(60.9)	9(39.1)	55.1
	여자	120	16(13.3)	83(69.2)	21(17.5)	0(0.0)	99(82.5)	21(17.5)	65.3
나이	60대	2	0(0.0)	2(100.0)	0(0.0)	0(0.0)	2(100.0)	0(0.0)	66.7
	70대	26	6(23.1)	13(50.0)	7(26.9)	0(0.0)	19(73.1)	7(26.9)	65.4
	80대	74	6(8.1)	53(71.6)	15(20.3)	0(0.0)	59(79.7)	15(20.3)	62.6
	90대	37	6(16.2)	26(70.3)	4(10.8)	1(2.7)	32(86.5)	5(13.5)	66.7
	100세 이상	4	0(0.0)	1(25.0)	3(75.0)	0(0.0)	1(25.0)	3(75.0)	41.7
거주지역	춘천시	22	1(4.5)	20(90.9)	1(4.5)	0(0.0)	21(95.5)	1(4.5)	66.7
	원주시	23	10(43.5)	8(34.8)	5(21.7)	0(0.0)	18(78.3)	5(21.7)	73.9
	홍천군	39	2(5.1)	24(61.5)	13(33.3)	0(0.0)	26(66.7)	13(33.3)	57.3
	횡성군	40	4(10.0)	28(70.0)	8(20.0)	0(0.0)	32(80.0)	8(20.0)	63.4
	철원군	14	1(7.1)	11(78.6)	2(14.3)	0(0.0)	12(85.7)	2(14.3)	64.3
	화천군	2	0(0.0)	2(100.0)	0(0.0)	0(0.0)	2(100.0)	0(0.0)	66.7
	타 시도	3	0(0.0)	2(66.7)	0(0.0)	1(33.3)	2(66.7)	1(33.3)	44.5
	가구 형태	독거	44	6(13.6)	29(65.9)	9(20.5)	0(0.0)	35(79.5)	9(20.5)
노인부부		20	3(15.0)	12(60.0)	5(25.0)	0(0.0)	15(75.0)	5(25.0)	63.3
치매 노인부부		4	1(25.0)	2(50.0)	1(25.0)	0(0.0)	3(75.0)	1(25.0)	66.7
배우자 및 가족		36	1(2.8)	26(72.2)	8(22.2)	1(2.8)	27(75.0)	9(25.0)	58.4
배우자없이가족만		38	7(18.4)	25(65.8)	6(15.8)	0(0.0)	32(84.2)	6(15.8)	67.6
기타		1	0(0.0)	1(100.0)	0(0.0)	0(0.0)	1(100.0)	0(0.0)	66.7
돌봄 기간	1년 미만	29	4(13.8)	20(69.0)	5(17.2)	0(0.0)	24(82.8)	5(17.2)	65.5
	1~3년 미만	50	8(16.0)	33(66.0)	9(18.0)	0(0.0)	41(82.0)	9(18.0)	66.0
	3~6년 미만	46	4(8.7)	31(67.4)	10(21.7)	1(2.2)	35(76.1)	11(23.9)	60.9
	6~9년 미만	8	1(12.5)	6(75.0)	1(12.5)	0(0.0)	7(87.5)	1(12.5)	66.7
	9년 이상	10	1(10.0)	5(50.0)	4(40.0)	0(0.0)	6(60.0)	4(40.0)	56.7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	6(25.0)	14(58.3)	4(16.7)	0(0.0)	20(83.3)	4(16.7)	69.5
	자주 필요	67	8(11.9)	48(71.6)	11(16.4)	0(0.0)	56(83.6)	11(16.4)	65.2
	거의 언제나 필요	23	2(8.7)	15(65.2)	6(26.1)	0(0.0)	17(73.9)	6(26.1)	60.9
	언제나 항상 필요	29	2(6.9)	18(62.1)	8(27.6)	1(3.4)	20(69)	9(31.0)	57.5
장기요양 등급	1등급	1	0(0.0)	1(100.0)	0(0.0)	0(0.0)	1(100.0)	0(0.0)	66.7
	2등급	5	0(0.0)	3(60.0)	2(40.0)	0(0.0)	3(60.0)	2(40.0)	53.3
	3등급	34	5(14.7)	21(61.8)	8(23.5)	0(0.0)	26(76.5)	8(23.5)	63.7
	4등급	51	2(3.9)	38(74.5)	10(19.6)	1(2.0)	40(78.4)	11(21.6)	60.1
	5등급	49	10(20.4)	31(63.3)	8(16.3)	0(0.0)	41(83.7)	8(16.3)	68.0
	인지지원등급	3	1(33.3)	1(33.3)	1(33.3)	0(0.0)	2(66.7)	1(33.3)	66.7
장기요양 급여 자부담 비율	15%	95	11(11.6)	59(62.1)	24(25.3)	1(1.1)	70(73.7)	25(26.3)	61.4
	9%	13	2(15.4)	9(69.2)	2(15.4)	0(0.0)	11(84.6)	2(15.4)	66.7
	6%	23	1(4.3)	19(82.6)	3(13.0)	0(0.0)	20(87.0)	3(13.0)	63.8
	0%	12	4(33.3)	8(66.7)	0(0.0)	0(0.0)	12(100.0)	0(0.0)	77.8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2(4.5)	30(68.2)	11(25.0)	1(2.3)	32(72.7)	12(27.3)	58.3
	미참여기관 이용	99	16(16.2)	65(65.7)	18(18.2)	0(0.0)	81(81.8)	18(18.2)	66.0

8)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책 필요성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은 긍정 응답 136명(95.1%)으로 부정 응답 7명(4.9%)보다 훨씬 많았으며 100점 환산 평균 78.8점으로 나타났다(표 29).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 긍정 응답한 치매환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1명(91.3%), 여자 115명(95.8%)이었고 나이는 60대 2명(100.0%), 70대 26명(100.0%), 80대 69명(93.2%), 90대 35명(94.6%), 100세 이상 4명(100.0%)이었다.

거주지역은 춘천시 22명(100.0%), 원주시 22명(95.7%), 홍천군 36명(92.3%), 횡성군 38명(95.0%), 철원군 14명(100.0%), 화천군 2명(100.0%), 타 시도 2명(66.7%)이었다.

가구 형태는 독거 40명(90.9%), 노인부부 20명(100.0%), 치매 노인 부부 4명(100.0%), 배우자 및 가족 34명(94.4%), 배우자 없이 가족만 37명(97.4%), 기타 1명(100.0%)이었다.

돌봄 기간은 1년 미만 29명(100.0%), 1~3년 미만 49명(98.0%), 3~6년 미만 40명(87.0%), 6~9년 미만 8명(100.0%), 9년 이상 10명(100.0%)이었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간혹 필요 24명(100.0%), 자주 필요 64명(95.5%), 거의 언제나 필요 22명(95.7%), 언제나 항상 필요 26명(89.7%)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 5명(100.0%), 3등급 33명(97.1%), 4등급 47명(92.2%), 5등급 48명(98.0%), 인지지원등급 3명(100.0%)이었고 자부담 비율은 15% 93명(97.9%), 9% 12명(92.3%), 6% 20명(87.0%), 0% 11명(91.7%)이었다.

시범사업 참여 구분은 참여기관 이용 40명(90.9%), 미참여기관 이용 96명(97.0%)

[표 29]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

(N=143)

구분	N	매우 필요하다 n(%)	필요하다 n(%)	필요하지 않다 n(%)	매우 필요하지 않다 n(%)	긍정 n(%)	부정 n(%)	100점 평균	
전체	143	60(42.0)	76(53.1)	6(4.2)	1(0.7)	136(95.1)	7(4.9)	78.8	
성별	남자	23	9(39.1)	12(52.2)	1(4.3)	1(4.3)	21(91.3)	2(8.7)	75.4
	여자	120	51(42.5)	64(53.3)	5(4.2)	0(0.0)	115(95.8)	5(4.2)	79.5
나이	60대	2	0(0.0)	2(100.0)	0(0.0)	0(0.0)	2(100.0)	0(0.0)	66.7
	70대	26	11(42.3)	15(57.7)	0(0.0)	0(0.0)	26(100.0)	0(0.0)	80.8
	80대	74	27(36.5)	42(56.8)	5(6.8)	0(0.0)	69(93.2)	5(6.8)	76.6
	90대	37	19(51.4)	16(43.2)	1(2.7)	1(2.7)	35(94.6)	2(5.4)	81.1
	100세 이상	4	3(75.0)	1(25.0)	0(0.0)	0(0.0)	4(100.0)	0(0.0)	91.7
거주지역	춘천시	22	8(36.4)	14(63.6)	0(0.0)	0(0.0)	22(100.0)	0(0.0)	78.8
	원주시	23	10(43.5)	12(52.2)	1(4.3)	0(0.0)	22(95.7)	1(4.3)	79.7
	홍천군	39	16(41.0)	20(51.3)	3(7.7)	0(0.0)	36(92.3)	3(7.7)	77.8
	횡성군	40	18(45.0)	20(50.0)	2(5.0)	0(0.0)	38(95.0)	2(5.0)	80.0
	철원군	14	5(35.7)	9(64.3)	0(0.0)	0(0.0)	14(100.0)	0(0.0)	78.6
	화천군	2	1(50.0)	1(50.0)	0(0.0)	0(0.0)	2(100.0)	0(0.0)	83.4
	타 시도	3	2(66.7)	0(0.0)	0(0.0)	1(33.3)	2(66.7)	1(33.3)	66.7
	가구 형태	독거	44	16(36.4)	24(54.5)	4(9.1)	0(0.0)	40(90.9)	4(9.1)
노인부부	20	7(35.0)	13(65.0)	0(0.0)	0(0.0)	20(100.0)	0(0.0)	78.4	
치매 노인부부	4	4(100.0)	0(0.0)	0(0.0)	0(0.0)	4(100.0)	0(0.0)	0.0	
배우자 및 가족	36	16(44.4)	18(50.0)	1(2.8)	1(2.8)	34(94.4)	2(5.6)	78.7	
배우자없이가족만	38	16(42.1)	21(55.3)	1(2.6)	0(0.0)	37(97.4)	1(2.6)	79.8	
기타	1	1(100.0)	0(0.0)	0(0.0)	0(0.0)	1(100.0)	0(0.0)	0.0	
돌봄 기간	1년 미만	29	12(41.4)	17(58.6)	0(0.0)	0(0.0)	29(100.0)	0(0.0)	80.5
	1~3년 미만	50	19(38.0)	30(60.0)	1(2.0)	0(0.0)	49(98.0)	1(2.0)	78.7
	3~6년 미만	46	18(39.1)	22(47.8)	5(10.9)	1(2.2)	40(87.0)	6(13.0)	74.7
	6~9년 미만	8	4(50.0)	4(50.0)	0(0.0)	0(0.0)	8(100.0)	0(0.0)	83.4
	9년 이상	10	7(70.0)	3(30.0)	0(0.0)	0(0.0)	10(100.0)	0(0.0)	90.0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간혹 필요	24	11(45.8)	13(54.2)	0(0.0)	0(0.0)	24(100.0)	0(0.0)	82.0
	자주 필요	67	32(47.8)	32(47.8)	3(4.5)	0(0.0)	64(95.5)	3(4.5)	81.1
	거의 언제나 필요	23	6(26.1)	16(69.6)	1(4.3)	0(0.0)	22(95.7)	1(4.3)	73.9
	언제나 항상 필요	29	11(37.9)	15(51.7)	2(6.9)	1(3.4)	26(89.7)	3(10.3)	74.7
장기요양 등급	1등급	1	0(0.0)	0(0.0)	1(100.0)	0(0.0)	0(0.0)	1(100.0)	33.3
	2등급	5	1(20.0)	4(80.0)	0(0.0)	0(0.0)	5(100.0)	0(0.0)	73.4
	3등급	34	18(52.9)	15(44.1)	1(2.9)	0(0.0)	33(97.1)	1(2.9)	83.3
	4등급	51	19(37.3)	28(54.9)	3(5.9)	1(2.0)	47(92.2)	4(7.8)	75.8
	5등급	49	20(40.8)	28(57.1)	1(2.0)	0(0.0)	48(98.0)	1(2.0)	79.6
	인지지원등급	3	2(66.7)	1(33.3)	0(0.0)	0(0.0)	3(100.0)	0(0.0)	88.9
장기요양 급여 자부담 비율	15%	95	39(41.1)	54(56.8)	1(1.1)	1(1.1)	93(97.9)	2(2.1)	79.3
	9%	13	7(53.8)	5(38.5)	1(7.7)	0(0.0)	12(92.3)	1(7.7)	82.1
시범사업 참여 구분	6%	23	7(30.4)	13(56.5)	3(13.0)	0(0.0)	20(87.0)	3(13.0)	72.5
	0%	12	7(58.3)	4(33.3)	1(8.3)	0(0.0)	11(91.7)	1(8.3)	83.3
시범사업 참여 구분	참여기관 이용	44	15(34.1)	25(56.8)	3(6.8)	1(2.3)	40(90.9)	4(9.1)	74.3
	미참여기관 이용	99	45(45.5)	51(51.5)	3(3.0)	0(0.0)	96(97.0)	3(3.0)	80.8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1. 결론

본 조사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이용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인지도, 이용 경험과 이용의향, 필요도 및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치매가족휴가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대상자인 치매환자 보호자 143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책 인지도

본 조사 결과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인지도 인지는 단기보호 55명(39.5%), 종일방문요양 42명(29.4%)으로 나타났다. 도내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인지도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26.2%)보다 높은 인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본 조사 대상에 공단 시범사업 참여기관 이용 돌봄 제공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치매가족휴가제 정보습득 경험은 있다 105명(73.4%)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습득 경로 1+2순위는 가족·친척·친구·지인 등 47명(32.9%), 타 기관(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27명(31.5%),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20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민의 치매인식과 정책요구도 조사, 중앙치매센터 조사에서 방송매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치매가족휴가제 정책이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부족하여 가족, 지인 등과 타 기관에서 정보를 습득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송매체의 홍보가 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 치매 유관기관에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광범위한 정책 홍보 등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들이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습득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이용 경험

본 조사 결과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이용경험에서 있다는 단기보호 5명(3.5%), 종일방문요양 1명(0.7%)으로 종일방문요양에 비해 단기보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인 이용경험 3.5%는 전국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 0.15%보다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에 공단 시범사업 참여기관 이용 돌봄 제공자가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수는 단기보호 1일 3명(60.0%), 3일 2명(40.0%), 종일방문요양 3일 1명(100.0%) 순으로 높고 이용 만족도 100점 환산 점수 평균은 단기보호 80점, 종일방문요양 100점으로 나타났다. 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한 부양부담 완화 정도는 정서적 부양부담 86.7점, 신체적 부양부담 80.0점, 시간적 부양부담 8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 대상으로 부양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수가 적었으므로 전국단위의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 1+2순위는 치매가족휴가제 몰랐음 83명(36.9%),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38명(16.9%), 지역 내 제공기관 없음 25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홍보 부족과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치매가족휴가제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부양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치매가족휴가제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이용 가능한 기관 수 확대, 이용일 수 확대 등 정책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3)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향후 이용 의향

본 조사 결과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의향 있다는 122명(85.3%), 없다 21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정책 향후 이용 의향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인 단기보호 이용 의향 있다(30.5%)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이용자 중 특히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돌봄 제공자에게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반복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용 의향이 있는 이유는 정신적 어려움 49명(40.2%), 시간적 어려움 31명(25.4%), 신체적 어려움 28명(23.0%)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8명(38.1%), 치매환자가 가족 외 도움을 원치 않음 5명(23.8%), 보호자가 가족 외 타인의 도움 불신 4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시간적·신체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치매가족휴가제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 향후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이용시 고려사항

본 조사 결과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우선 고려사항은 기관의 시설 환경 54명(37.8%), 자부담금액 44명(30.8%), 기관평가 33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에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치매환자가 지내기에 불편함 없는 시설과 환경을 갖춘 기관,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자기부담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치매가족휴가제 적정 이용일

본 조사 결과 현재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9일) 적정성은 적절하다 111명(77.6%), 적절하지 않다 32명(2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이 적절함을 시사하지만 본 조사의 응답자 96.5%가 이용 경험이 없고 70.1%가 정책 인지도가 적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 적절하지 않다 응답자는 적정 이용일로 단기 보호 16.4일, 종일방문요양 17.0일로 나타났고 적절하지 않다고 제시한 내용은 현재 이용일 수 부족 7명(31.8%), 휴식필요 6명(27.3%), 월 1회 이상 필요 5명(22.7%), 사회활동 참여 필요 4명(18.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매가족휴가제를 휴식 및 사회활동 참여 등의 사유로 월 1회 이상 이용을 희망한다고 생각된다.

6)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정성

본 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정성은 긍정 113명(79.0%), 부정 30명(21.0%) 순으로 100점 환산 평균 63.7점으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자부담 비율은 15.0%보다 낮은 10.1%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90.9%가 일반적 경제 수준(건강보험 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금액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7)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

본 조사 결과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은 긍정 136명(95.1%)으로 부정 7명(4.9%)보다 아주 많았으며 100점 환산 평균 78.8점으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 제시한 내용은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만족 4명(66.7%), 치매환자가 거부 1명(16.7%), 이용일 수 부족 1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에게 치매가족휴가제 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8)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활성화 방안

본 조사 결과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은 홍보필요 18명(46.2%), 기관 수 확대 필요 6명(15.4%), 공공 이용기관 필요 3명(7.7%), 이용일 수 확대 필요 3명(7.7%), 기관 환경개선 필요 3명(7.7%),

자부담 경감 필요 3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활성화를 위해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홍보 및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양적 확대가 요구되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9) 치매환자 돌봄 어려움 유무에 따른 치매가족휴가제

본 조사 단기보호 인지 여부에서 인지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시간적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에게 높게 나타났다. 정보습득 경험 있다는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사회적·시간적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에게 높게 나타났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의향 있다는 신체적·사회적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이 없는 응답자에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시간적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에서 단기보호 인지 여부, 정보습득 경험, 이용 의향 긍정 응답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수면장애, 피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적은 돌봄 제공자가 모임, 종교활동 참여와 같이 사회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 정책을 보다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 충족을 위한 대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치매환자 돌봄제공자로 요양보호사 등의 적절성

노인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비율 적정성에서 치매환자 동거 여부($x^2=1.482$, $p>.05$)와 가족 여부($x^2=2.411$, $p>.05$)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가족휴가제 정책 필요성에서 치매환자 동거 여부($x^2=4.724$, $p>.05$)와 가족 여부($x^2=7.447$, $p>.05$)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독거 치매환자 돌봄이 요양보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자를 가족 이외에 요양보호사 등으로 확대한 점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 제언

2014년 7월 처음 도입된 치매가족휴가제는 장시간 간병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 제도로 2023년은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용률은 기대와는 다르게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치매가족휴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가족휴가제 시행기관을 확대하여야 한다. 치매환자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 기관과 종일 방문요양기관, 단기보호가 가능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보호기관의 경우, 정원 제한과 인력 부족으로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기관 수도 부족하여 가족들이 필요에 맞게 편리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으로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범사업의 한계로 이용이 적절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을 위해서는 매년 감소('18년 179개소, '19년 162개소, '20년 148개소, '21년 137개소, '22년 26개소)하는 단기보호기관을 지원·유지·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전국 단기보호가 가능한 주·야간보호기관은 2023년 7월 기준 240개로 주·야간보호기관 5,090여개 대비 5% 미만대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이용율 향상을 고려한 주·야간 보호기관 확대가 시급하다.

둘째, 정책 수행을 위한 단기보호기관 급여 개선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치매가족휴가제와 같이 일시적·단기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가족의 부담 경감 방안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수요자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정책을 펴 왔지만, 공급자에 대한 급여 개선과 인센티브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책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시간을 돌보더라도 일반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정신행동증상 등으로 높은 치매환자의 돌봄 강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적 급여체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치매가족휴가제 운영주체를 민간부문 위주에서 공공부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단기보호 시설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기관은 2022년 12월 기준 총 3개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렇게 치매가족휴가제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 여건이 열악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상당수 꺼리고 있으며, 자기희생적인 의지 없이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운영 연속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운영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환자와 가족 등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지고 민간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공공에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실시가 시급하다.

넷째,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안내가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치매 대응은 이전 정부를 계기로 중요성과 관심이 부각되었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는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도 동시에 요구된다. 치매환자를 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치매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로 진단받은 후에는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반면,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잘 알게 되면 관련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과 연령별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전달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치매가족휴가제의 활성화 근거 마련을 위해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국규모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원인 파악과 활성화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는 국내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아 추가 연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독거 치매환자의 증가하며 돌봄 제공자가 가족 외 이웃·요양보호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돌봄 제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국단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V

참고문헌

- 강은나, 이윤경, 임정미, 주보혜, 배혜원. (2023).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세종: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은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10), 64-74.
-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2022). 2022년 강원도민의 치매인식과 정책 요구 조사보고서. 춘천: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 고영인 의원실. (2021년 10월 7일). 고영인 의원, 휴가 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 1%도 안돼[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kyi4853/222529864423>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국민건강보험공단.
- 권진희.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10), 19-30.
- 김미령, 고성숙, 최용희. (2022). COVID-19 이후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경험 연구. 서울:서울시50플러스재단.
- 김미현. (2018). 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 노인돌봄가족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연구, 6(1), 79-120.
- 오영주, 이명하, 김희선. (2020). 재가 치매노인 가족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돌봄행위 간의 관계: 돌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인간호학회지, 32(2), 186-198.
- 유애정, 이호용, 김경아, 이지혜, 이윤경. (2014).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윤보라, 심용수, 김용덕, 이기욱, 나상준, 홍윤정, 양동원. (2012). 치매 환자는 누가 돌보는가: 독거 치매 노인 현황과 주부양자 조사 연구. 대한치매학회지, 11(1), 13-17.

- 이서영.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에서의 치매노인지원 현황과 과제. 장기요양연구, 2(2), 54-75.
- 이영옥. (2020). 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세종:한국개발연구원.
- 이윤경, 이선희, 강은나, 김세진, 남궁은하, 최유정. (2023).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세종: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가원. (2022). 국가치매정책 내 돌봄의 주류화 필요성 및 정책과제.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승훈, 서영준. (2022). 치매 환자 부양 가족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선된 질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11), 724-737.
- 중앙치매센터. (2020). 2019 치매환자유병현황. 서울:중앙치매센터.
- 통계청. (2023년 9월 26일). 2023 고령자 통계[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7252
- 허목화, 허남재, 유지영. (2022). 강원도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생활실태조사. 춘천: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VII 부록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 치매진단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정책인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도출 및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대상: 도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치매환자의 보호자
- 기간: 2023년 9월 8일 ~ 9월 26일
- 방법: 서면설문, 약 15분 정도 소요
- 내용: 총 37문항(치매환자 특성, 치매가족휴가제, 응답자 특성)
- 제출: 이용 중인 주·야간보호기관
- 사례: 1만원 상당 온라인상품권(문자 발송, 기간 내 제출된 설문지에 한함)

귀하는 설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사 결과는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에 대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 의사 확인서

성명		휴대전화 번호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연구 참여의사 확인 및 사례(온라인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① 참여 동의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 성명, 휴대전화 번호 ② 사례 문자 발송에 이용 :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 종료 후 개인정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본 연구 참여에 관한 사례(온라인상품권)를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장 귀중

나. 치매가족휴가제: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했습니다.

나1. 귀하는 현재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인지 정도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봤다	④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1 단기보호				
2 종일방문요양				

나1-1. 귀하가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해보신 순서대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②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③ 인터넷(홈페이지, SNS 등)
 ④ 홍보물(책자, 리플렛 등) 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⑥ 교육강좌
 ⑦ 타기관(보건의료기관 복지관 등) ⑧ 기타(____) ⑨ 없다

나2. 귀하가 돌보는 치매환자의 최근 1년간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 경험과 이용 정도에 대해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두 항목 모두 이용 경험 ② 없다, ③ 모른다 선택 시 ⇒ 나2-5로

항목	이용 경험			이용 정도 (이용 여부 '있다' 해당) 이용 일수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른다	
1 단기보호				최근 1년 동안 (____)일
2 종일방문요양				최근 1년 동안 (____)일

* 종일방문요양은 1회를 0.5일로 환산

나2-1. 귀하가 생각하는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항목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항목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 단기보호				
2 종일방문요양				

나2-2 귀하가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이용 경험을 통한
부양부담 완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부양부담 완화 정도			
	① 매우 도움된다	② 도움된다	③ 도움되지 않는다	④ 매우 도움되지 않는다
1 신체적 부양부담 ¹⁾ 완화				
2 정서적 부양부담 ²⁾ 완화				
3 경제적 부양부담 ³⁾ 완화				
4 사회적 부양부담 ⁴⁾ 완화				
5 시간적 부양부담 ⁵⁾ 완화				
6 기타() 부양부담 완화				

- 1) 신체적 부양부담: 피로, 수면장애, 통증 증가 등 2) 정서적 부양부담: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
3) 경제적 부양부담: 직업 활동 제한, 근무시간 단축 등 4) 사회적 부양부담: 모임, 종교활동 참여 제약 등
5) 시간적 부양부담: 치매환자 돌봄에 사용한 시간 등

나2-3. 귀하가 돌보는 치매환자가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을 위한
차량 이동(왕복기준)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분 미만 ② 30분~60분 미만 ③ 60분~90분 미만
④ 90분~120분 미만 ⑤ 120분 이상 ⑥ 해당 없음(종일방문요양 이용, 걸어서 이동)

나2-4. 귀하가 돌보는 치매환자가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를
이용할 때 가장 우선되는 사항 1가지는 무엇입니까? = 나3으로

- ① 자부담금액 ②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③ 장기요양기관의 광고·홍보 내용
④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환경 ⑥ 지인의 소개 및 추천
⑦ 기타()

나2-5. 귀하가 돌보는 치매환자가 최근 1년간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작성해주시시오.

▶ 1순위(), 2순위()

- ① 지역 내 제공기관 없음 ② 치매가족휴가제를 몰랐음
③ 보호자가 가족 외 타인의 도움 불신 ④ 치매환자가 가족 외 도움을 원치 않음
⑤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 이용 시간의 불충분
⑦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만 ⑧ 기타()

나3. 귀하는 아래 보기의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내용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 기>

◎ 치매가족휴가제란?

-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를 연 9일 이용하거나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연 16회 이용 가능
- * 단기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에 입소하여 보호 및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 **종일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돌봄 등을 제공

- ① 이용 의향 있다 ② 이용 의향 없다 ⇒ 나3-2로

나3-1. 귀하가 앞으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가장 큰 이유 1가지는 무엇입니까? ⇒ 나4로

- ① 신체적인 어려움 ② 정신적인 어려움 ③ 경제적인 어려움
 ④ 사회적인 어려움 ⑤ 시간적인 어려움 ⑥ 기타()

나3-2. 귀하가 앞으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의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작성해주시시오.

▶ 1순위(), 2순위()

- ① 지역 내 제공기관 없음 ② 치매가족휴가제 정보 부족
 ③ 보호자가 가족 외 타인의 도움 불신 ④ 치매환자가 가족 외 도움을 원치 않음
 ⑤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 이용 시간의 불충분
 ⑦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만 ⑧ 기타()

나4. 귀하는 앞으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를 이용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1가지는 무엇입니까?

- ① 자부담금액 ②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③ 장기요양기관의 광고홍보내용
 ④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 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환경 ⑥ 지인의 소개 및 추천
 ⑦ 기타()

나5. 2023년 7월 기준으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는 연간 9일 이용 가능합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이용일 수는 며칠입니까?

※ 종일방문요양 1회는 0.5일로 환산

- ① 단기보호 연간 ()일, 종일방문요양 ()일 / 사유()
 ② 현재 이용일 수가 적절하다

나6.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기와 같은 자부담 비율이 발생합니다. 귀하는 현재의 자부담 비율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 기>

구분	자부담 비율	대상
일반대상자	15%	감경 대상이 아닌 자
40% 경감자	9%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자 등
60% 경감자	6%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 등
100% 경감자	0%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

- ① 매우 적절하다⇒ 나7로 ② 적절하다⇒ 나7로 ③ 적절하지 않다 ④ 매우 적절하지 않다

나6-1. 귀하가 현재의 자부담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6-2.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자부담 비율은 얼마입니까?

- ① 일반대상자(현재 15%) 적정 자부담 비율 (____)%
 ② 의료급여수급자(현재 0%) 적정 자부담 비율 (____)%

나7. 귀하에게는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나8로 ② 필요하다⇒ 나8로 ③ 필요하지 않다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나7-1. 귀하에게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8.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오.

다. 응답자 특성: 귀하가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V) 또는 기술했주세요.

다1. 귀하는 현재 거주 지역이 어디입니까?

- | | | | |
|-------|-------|-------------------|-------|
| ① 춘천시 | ② 원주시 | ③ 강릉시 | ④ 동해시 |
| ⑤ 태백시 | ⑥ 속초시 | ⑦ 삼척시 | ⑧ 홍천군 |
| ⑨ 횡성군 | ⑩ 영월군 | ⑪ 평창군 | ⑫ 정선군 |
| ⑬ 철원군 | ⑭ 화천군 | ⑮ 양구군 | ⑯ 인제군 |
| ⑰ 고성군 | ⑱ 양양군 | ⑲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시·도 | |

다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다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다4. 귀하의 교육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년

다5. 귀하의 경제수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할 때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해당없음(건강보험 등) ② 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6. 귀하는 치매환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며느리 ④ 사위
⑤ 손자녀 ⑥ 친인척 ⑦ 간병인 ⑧ 요양보호사 ⑧ 기타()

다7. 귀하는 치매환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다8로 ② 비동거

다7-1. 귀하는 최근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치매환자 집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① 평균 주 2회 이상 ② 평균 주 1회 ③ 평균 2주 1회 ④ 평균 4주 1회 이하

다8. 귀하는 최근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사용한 하루 평균 돌봄 제공 시간 (환자 혼자 보내는 시간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____)시간

다9. 귀하는 최근 1개월 동안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항목별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항목	돌봄 어려움 정도			
	① 항상 느낌	② 자주 느낌	③ 가끔 느낌	④ 거의 안 느낌
1 신체적 어려움 (수면장애, 피로 등)				
2 정서적 어려움 (스트레스, 우울감 등)				
3 경제적 어려움 (소득 감소, 직업활동 제한 등)				
4 사회적 어려움 (모임, 종교활동 참여 등)				
5 시간적 어려움 (돌봄에 사용한 시간 등)				
6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조사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발행인 주진형
집필인 이윤호, 김연미
자문교수 강원대학교병원 의생명원구원 임명남 교수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춘길 명예교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암노인보건의료센터 7508호
전화 033-258-9162
홈페이지 <https://gangwon.nid.or.kr>

※ 본 보고서는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소유이므로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